

규슈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목차

답사일정표			2
1865년 나가사키, 두 청년의 만남 _나가사키 구라바엔	①	강민아	4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_한일교류박물관	②	이새라	27
서구를 홀린 동아시아의 매력을 만 나다 _큐슈도자문화관	③	김호인	41
Waging a Nerve War in Asia- Pacific Theater _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④	오다열	70
청은 왜 청일전쟁에 참전했을까 _일청강화기념관	⑤	김동진	90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개화론’의 제 국주의적 변질과 조선 _규슈국립박물관	⑥	주연정	111
사료로 본 나가사키 원자폭탄과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언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⑦	노가연	136

답사일정표

12월 26일 (화)

- 09:00 ~ 10:30 인천공항 출국, 규슈 도착
12:00 ~ 13:00 점심식사
13:30 ~ 14:30 원폭자료관 / 노가연
15:30 ~ 16:30 데지마 / 이현미 박사님
18:30 ~ 19:30 저녁식사
20:00 ~ 21:00 구라바엔 / 강민아

12월27일 (수)

- 10:30 ~ 11:30 한일교류박물관 / 이새라
13: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규슈도자박물관 / 김호인
16:00 ~ 17:00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 오다열
18:00 ~ 19:00 저녁식사

12월28일 (목)

- 11:00 ~ 12:00 일청강화기념관 / 김동진
12:30 ~ 13:30 점심식사
15:00 ~ 16:00 커넬시티(규슈국립박물관) / 주연정
16:30 ~ 17:30 저녁식사
20:35 ~ 22:00 후쿠오카공항 출국, 인천 도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수 정예의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1865년 나가사키, 두 청년의 만남

_나가사키 구라바엔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구라바엔을 찾아서

구라바엔(グラバー園, Glover park)은 나가사키시에서 일본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메이지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문화유산지구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은 우연히 ‘빛의 왕국’의 컨셉으로 야간개장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변경해서 배를 먼저 채우고 해가 지고서야 구라바엔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라바엔이 위치한 미나미야마테 언덕은 19 세기 외국 상인들이 살았던 과거의 거리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시간이 늦어서 모든 거리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스스로가 원조임을 자랑하며 시끌벅적 사람들을 매혹했을 카스테라 상점들은 한결같이 불을 끄고 조용히 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싸늘한 공기만큼이나 아쉽게 느껴지는 한편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구라바’라는 명칭은 19세기 말 나가사키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상인인 토머스 브레이크 글로버(T.B. Glover, 1838-1911)에게서 따온 것인데, 시에서 주최한 ‘나가사키 메이지 마을(長崎明治村)’의 이름을 짓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글로버라는 인물이 현대 일본인들에게도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듯합니다. 구라바엔은 글로버의 옛 주택을 중심으로 19세기 메이지유신과 관련 된 여러 건물들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에는 일본의 주요 전통 건물 보전지구로, 2015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록 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나가사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이 근대화를 경험했을 그 당시의 숨결이 간직된 채, 21세기에도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구라바엔 답사를 준비하며 가장 마음이 이끌렸던 부분은 과거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일본’에 대하여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19세기 일본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구라바엔에 방문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훨씬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열을 내며 토론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가사키는 일본의 오래 된 대외창구로서 서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진 장(場)이었고, 글로버는 외국인 상인으로 대외문물에 해박하며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었던 만큼 그의 저택은 변환의 시대 앞에서 꿈틀꿈틀하는 무언가를 느끼던 청년들이 모이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버의 아내 쓰루가 사용하던 부인방 복도의 천장에는 창문 없는 비밀의 방이 존재하는데, 이 곳에서 글로버와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1835-1867)의 밀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료마는 메이지유신의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던 삿쵸동맹(薩長同盟)의 주역으로서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만큼 구라바엔에서의 료마와 글로버의 만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알려진 바는 이들이 1965년 무기거래 협상을 타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비밀의 방에서 이루어진 글로버와 료마, 두 인물의 만남을 추적하여 그들이 변환의 시대를 바라보며 느꼈을 감회와 호기심, 신념, 그리고 정치적 선택들을 함께 호흡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무대, 19세기 나가사키

막말기 일본의 대외적 상황, 서세동점의 충격과 나가사키

두 인물의 만남의 무대가 되었던 19세기 나가사키는 대내외적인 격변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에는 외세와 일본, 막부와 번 사이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근대적 무기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였고 두 인물은 바로 이 시점에 인연을 맺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19세기는 1840년 중국에서의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쓰나미가 동아시아 세계에 밀려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서구 열강은 함포외교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항하도록 압박하였고 이렇게 맺어진 서구와의 불평등 조약에 따라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는 근대적 조약체계에 편입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독자적인 중화(中華)질서의 문명권을 오랜 세월 구성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름의 균형과 풍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구열강의 등장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폭력적으로 들이치는 것이었고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본 또한 중국을 문명의 표준으로, 그리고 중화문명권 바깥의 존재들을 오랑캐로 여기는 전통적인 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화문명권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징이나 사대부가 아닌 무사계급, 즉 사무라이가 지배층이었다는 특수한 정치적 요건으로 인해 일본의 화이(華夷)관념은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植手通有, 1971). 따라서 일본은 전통적 문명질서보다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 안목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나가사키 해안에 위치한 데지마(出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근대적 조약체계가 맺어지기 이전부터 네덜란드와의 대외 무역 및 교류가 지속되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도쿠가와(徳川) 막부 정권은 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인공 섬 데지마를 만들었고 외국인 방문객들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관리들도 공무상 용건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막부는 데지마의 출입을 엄밀히 규제하여 대외교역을 전면 통제하는 동시에 서구에 대한 호기심의 창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나가사키는 데지마에서 전개되었던 기왕의 대외교류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때부터 일본의 대외관 또한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과거 데지마를 오가던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막부 관료에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19세기 영국 영사는 관료들에게 소집 명령을 임의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Sidney Devere Brown, 1993). 이러한 변화는 나가사키에서 막부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대외교류를 감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일본은 체결된 ‘조약’의 내용에 따라 서구식 외교관 및 영사제도, 자유무역, 관세, 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를 수용하여 교류 및 통상의 문제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무렵부터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서구 열강이 본격적으로 나가사키 항구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19세기 나가사키는 본격적인 근대적 국제정치의 무대로서 재구성 되었던 것입니다.

막말기 일본의 대내적 상황, 존황양이의 대두와 근대적 군제개혁

한편 이러한 국제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당시 일본의 대내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1853년 페리제독의 등장 및 개항 요구 이후 각 지역, 즉 번(藩)의 다이묘(大名)들 사이에서 개국과 쇄국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막부는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막부에 대한 번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외세에 대항하여 일본의 중심을 보다 굳건하게 하고 일본 전통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수백년 동안 상징 권력에 머물러 있었던 천황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혼란이 극적으로 표출 된 사건으로서 1864년의 금문의 변(禁門の變)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천황을 높이고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는 ‘존황양이’(尊皇攘夷)를 주장하는 조슈(長州)번이 교토 시내에서 시가전을 벌인 것으로 개항 이후의 막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란은 사쓰마(薩摩)번의 군대가 막부 측의 선봉에

서면서 조슈 군의 퇴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슈번과 사쓰마번은 막번(幕藩) 체제에서 가장 세력이 큰 번들이었고 막부는 어느 한 편이 문제를 초래할 때마다 다른 상대와 힘을 합세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막부가 천황의 안위를 명분으로 삼아 사쓰마 번을 끌어들이어 조슈번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쓰마번 내부에서도 ‘양이론’보다는 조정과 막부, 그리고 번의 통치력을 합해야 한다는 ‘공무합체론(公武合體論)’의 입장이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막부의 편에 섰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토는 불바다가 되어 20,000호 이상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역을 주도한 조슈번은 조정(朝廷)의 적, 조적(朝敵)으로 낙인 찍혔고 이는 번 바깥과의 교역 및 거래 또한 금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조슈 군의 퇴각 이후 막부는 곧바로 변란의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35개의 번에서 약 15만명을 동원하여 조슈 정벌을 나섰고 이는 막말기의 최대의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교토 내에서 조슈 떡(長州おはぎ)이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곤경에 처한 조슈 군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로부터 개국과 쇄국을 둘러싼 거대한 전환기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65년, 조슈번과 막부 사이의 갈등이 근대적

군제개혁의 경쟁으로 나타나면서 무기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조슈 군은 교토에서 후퇴한 직후 시모노세키(下関) 항구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4개국의 함대와 맞부딪치는 바칸전쟁(馬関戦争)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양이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근대적 기술력 앞에서 외세의 배척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대적 군제개혁을 통해 막부에 대한 군사적 대항력을 키우는 것이 전략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슈는 외부와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무기를 입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편 막부 또한 바칸전쟁 이후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시모노세키의 개항 혹은 배상금 지불의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했지만 한편으로 조슈번의 무기거래를 경계하고 있었기에 시모노세키의 개항이 더더욱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결국 막부는 프랑스의 권유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막부 권력을 보호하는 한편 막부와의 독점적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일본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하던 영국을 제치고 막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의 무기거래, 글로버와 료마의 만남

토머스 브레이크 글로버, 바다를 건너

글로버는 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개항한 바로 다음 해인 1859년도부터 일본의 대외 교역에서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해안 도시에서 태어나 명성 높은 김나지움에서 교육 받았으며 휴일에는 해안 경비대인 아버지에게 항해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눈 앞에서 펼쳐진 드넓은 바다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의 궁금증을 매혹했을 것이고, 드높은 긍지와 도전정신을 중시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교육은 그가 실제로 새로운 여정을 떠나도록 추동했을 것입니다.

그는 극동지역 무역으로 유명한 자르딘 마티슨 상회(Jardin & Matheson co.)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의 상해에 머물렀습니다. 상해는 이미 서구와의 교역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었고 자르딘 마티슨 상회는 당시 3대 상품인 비단, 차, 아편 무역으로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일과 술, 그리고 매춘이 반복되는 생활에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만나게 된 케네스 맥킨지(Kenneth Mackenzie)를 따라 다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분명히 대외교역의 블루오션이었지만, 그만큼 외국인 상인에게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개항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습격 및 살해 등의

혐오 범죄가 빈번히 나타나기도 하였고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는 여전히 데지마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맥킨지의 하수인으로서 그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였습니다. 그는 데지마에 첫 번째 터를 잡고 외국인에게 적대적으로 간주 되던 젊은 사무라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교역의 확산을 규제하는 막부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무라이 사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막부에 대한 반발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杉浦裕子, 2012).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향을 떠나 발 딛고 살아갈 곳을 찾아다닌 그는 타지의 동년배인 사무라이들과의 관계 에서 강한 유대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그와 사무라이들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토대로 일본정세를 예리하게 읽어내고 직간접적으로 막말기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게 됩니다.

1862년 맥킨지가 상해로 떠난 이후 글로버는 자신의 이름을 걸어 자르던 마티스사의 대리점인 글로버 상회(Glover co.)를



사진 1. 구라바엔에서 보이는 야경

설립했습니다. 그는 차와 비단 무역을 시작으로 상회의 규모를 키워갔고 1863년에는 미나미야마테(南山手) 지역에 글로버 저택을 세워 나가사키 중심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가사키 시내에 그의 활동 본거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나미야마테의 언덕을 올라 글로버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서 고개를 돌려보면 상당히 높은 고도에 새삼스레 놀라게 됩니다. 특히 어두워진 나가사키의 시내를 신기할 정도로 고층 건물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유난히 작은 조명들이 야경을 이루고 있어서 이곳에 서있는 스스로가 무언가 신성한 존재라도 되어 시내를 ‘굽어보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다른 편의 캄캄한 바다 또한 완벽한 풍경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구라바엔에서 보이는 전망은 계속해서 변했겠지만 그래도 밤의 풍경은 과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글로버도 이곳에서 나가사키를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라바엔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글로버의 환영과 19세기의 나가사키를 떠올리게 하는 이상, 그가 19세기 말의 특정 국면을 전면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당대에 처해있던 복합적인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사무라이들의 소식통을 통해 당시 막부정권의 대내외적 갈등과 번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 정세에 귀를 기울이던 것일까요. 이러한 그의 정치적 관심이 무역상으로서 거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scottishi samurai’로서 막부정권을

타도하고 더 나은 일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대영제국의 국민으로서 제국주의적 시선에서 일본 정국에 개입하고자 한 것인지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Sidney Devere Brown, 1993). 그는 막부의 타도를 주장하는 사무라이들과 교류하며 스스로를 “도쿠가와 막부의 반역자 중에서도 나는 최대의 반역자이다(McKay Alexander, 1993)”라고 표현하는 한편, 막부와의 교역에서 얻었던 실리를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글로버가 영일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주요한 역할을 도맡았었던 대목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일외교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의 국제정치적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는 바칸전쟁 이후 막부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공사인 해리 파크스(Harry Parks)는 막부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정, 막부, 번의 혼란 속에서 자유무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864년 글로버는 파크스가 사쓰마 번에 위치한 카고시마(鹿兒島)에 방문하도록 중개하는데, 이 회담 이후 영국은 막부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번의 세력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영국 측에서도 번 세력이 ‘양이’의 비현실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막부의 무역독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글로버의 개입으로 영국은 막번 체제를 둘러싼 일본 정세에 예리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버는 대내외적 격변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야욕이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청년시절 그의 가장 야심 찬 프로젝트였던 1863년 조슈에서, 1865년 사쓰마에서 일본의 젊은 사무라이들이 영국에 다녀오도록 비밀리에 힘 썼던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막부정권은 번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기에 이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시도를 기획한 것은 그의 야욕이 경제적 실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부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젊은 사무라이 들에 대한 동류의식과 기대, 그리고 서구 문명에 대한 자신감 등에 걸쳐 있으며 혼란스러운 시대만큼이나 복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국으로 떠나게 된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을 ‘살아있는 기계(生きたる機械)’라 칭하며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가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선원으로 변장하여 아편 선박에 밀항하는 등 막말기 일본의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존황양이를 마음에 품고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사무라이들이 런던에서 증기 기관차와 같은 근대 기술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혼란을 지금으로서는 감히 가늠해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메이지유신의

주역들을 키워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슈에 파견 된 조슈5결의 경우 최초의 외무대신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초대 내각총리 대신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폐국장 엔도 킨스케(遠藤謹助), 철도국장관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그리고 지금의 동경대학 공학부의 설립자 아마오 요조(山尾庸三)로 성장하여 메이지 일본의 다양한 위치에서 제각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변을 탈주하여

1862년 사카모토료마는 난학(蘭學)의 전문가이자 미국의 외교 사절단이었던 가쓰 카이슈(勝海舟, 1823-1899)를 암살하려 합니다. 당대 젊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는 막부와 외세에 대한 불만이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 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었고 료마 또한 이러한 대열 속에서 칼을 갈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료마는 카이슈와의 만남으로 오히려 현실적인 대외 정세에서 부국강병을 위해 ‘개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카이슈는 개국이 옳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해군력을 갖추어 인근의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서구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막부가 아니라 국가 공동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그는 변과의 교섭에 적극적이었고, 변의 구분 없이 인재를

발굴하였습니다. 료마는 이처럼 시대를 앞선 파격적인 기획에 매료되었습니다. 칼을 들고 카이슈를 찾아가던 료마는 시대의 복합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도사(土佐)번 출신의 하급 사무라이였습니다. 1850년대부터 일본사회는 서양 세력의 위협에 맞서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전통무술이나 검술 도장이 대거 운영되었습니다(Jansen, Marius B, 1961). 이는 사무라이 정신의 전통을 강조하는 반(反)개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료마 또한 학업에 매진하기보다 검술 도장을 다니며 이러한 급진적 분위기와 어울렸고 19살에는 검술을 수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도(江戸)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54년 페리제독의 흑선이 출현하면서 젊은 사무라이 층에서 외세에 대한 반발심이 더욱 강해지고 존황양이의 정서가 널리 확산 되었습니다. 서구 오랑캐의 유입과 막부 고위층의 타락에 대한 분노, 그리고 천황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이라는 사무라이 특유의 명료하고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이 젊은 사무라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1862년 가쓰 카이슈를 찾아가기까지 료마는 존황양이를 마음에 품는 한편 도사 번의 하급 무사 출신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크게 방황한 듯합니다. 그가 존황양이를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당면했던 신분제 앞에서의 주장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그가 1862년 위협을 감수하고도 번을 탈출하여 국가 무대에서 설 자리를 찾도록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슈와의 만남에서 그가 개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그가 우유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의(大義)에 대한 꿈과 열정 속에서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64년 막부는 가쓰 카이슈를 해임했습니다. 금문의 변과 바칸전쟁 이후 막부 내에서 막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파가 힘을 얻으면서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고 번의 낭인들과 어울리는 카이슈가 눈에 걸렸던 것입니다. 료마 또한 새로운 길을 다시 찾아야 했고 카이슈의 소개로 인연이 있는 사쓰마 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당시 사이고다카모리는 조슈 정벌에 가담하고서도 공무합체론에서 구상했던 번의 협업체 구성이나 소군(將軍)의 기득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막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막부가 외세와의 교역에서 이윤을 독점하는 한 편 사쓰마 번의 재정상황은 악화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막번 체제, 새로운 대외 관계의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료마가 사쓰마 번을 방문한 것은 료마에게도 사이고 다카모리에게도 일본의 미래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큰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1865년 료마와 일행은 카고시마를 경유하여 나가사키로 떠났습니다. 일행들은 대부분 카쓰카이슈가 만든 해군조련소의 수련생들로 해군력을 갖추어 막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이끌어 나가사키에서 무기거래의 중개와 물자 운반 등으로 이익을 얻는 한편 막부를 타도하는 데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무역회사이자 정치단체인 카메야마샤츄(龜山社中)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을 주주로 끌어들이어 양번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유력한 번의 성장이 막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새 정부가 수립되면 이를 국책회사로 발전시켜 더 넓은 바다에서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할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는데, 이는 힘의 정세를 통찰하는 예리함, 권력을 넘어서는 나라를 향한 애정, 그리고 자신감이 나타난 것이겠지요. 회사는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인 카이엔타이(海援隊)로 발전하여 제 모습을 갖추어 갔고 이를 기점으로 로마는 사쓰마와 조슈, 막부와 에도, 그리고 외세 사이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가게 됩니다. 또한 막말기의 중요한 역사적 지점에서 각자 자신의 길을 만들어 온 글로버와 로마가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65년 협상타결



사진 2. 발표하는 본인

구라바엔의 입구를 지나서 바로 보이는 워커 저택에 가면 2층 첫 번째 방에 로마의 사진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글로버가 썼을 것 같은 모자를

꺼내 쓰고 로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긴장되었습니다.

1865년 3월 막부는 2차 조슈정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864년 바칸전쟁 이후 가쓰 카이슈와 같은 진보적 인사를 쳐내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보수 인사들이 조정에서 막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부의 자신감은 바칸전쟁 이래로 막부의 배후였던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변들은 또한 이 전쟁이 막번 체제와 천황의 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하였습니다. 조적으로 낙인 된 조슈 번의 경우 근대적 무기를 입수하여 막부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1차 조슈정벌에서 선두에 섰던 사쓰마번의 경우에는 번의 재정난이 악화 되고 공무합체론의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부의 계획에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1865년 7월, 영국의 새로운 공사 해리 파크스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사쓰마에 방문하여 막부의 힘이 기울고 있으며 프랑스를 견제하고 자유무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번의 편에 서는 입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1865년은 요동하는 서세동점의 무대에서 전통적으로 제자리를 지키던 다양한 주체들이 새롭게 제 모습을 꾸려갈 준비를 완수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서양의 문물을 수용한 국가로 간주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유혈사태를 최소화 하여

메이지유신이라는 새로운 장막을 시작할 수 있었던 역사적 계기가 형성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글로버와 료마의 만남은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었던 일본의 문명사적 변환에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력한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근대적 군사체제나 무기와 같은 물리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를 무대로 한 이들의 첫 만남은 글로버상회와 카메야마샤츄의 무기거래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두 상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낙인 찍힌 조슈번은 사쓰마번의 이름을 빌어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65년 5월 조슈번의 다이묘가 번군의 근대적 군제개혁 정책을 선포하였을 때, 메이지3결 중 한명으로 거명되기도 하는 키도 다카요시(木戸孝允)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글로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60년대에 글로버는 차와 비단뿐 아니라 선박과 무기거래에 손을 넓히고 있었고, 또한 넓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조슈번에서 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번을 가리지 않고 젊은 사무라이들과 교류했었고 실제로 키도다카요시와 사쓰마번의 사무라이이자 기업가인 고다이도모아쓰(五代友厚)의 교우를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이 오랜 기간 숙적이었던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협력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료마 또한 이 시기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쓰

카이슈의 문하를 떠나면서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힘을 모아 막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키도 다카요시는 그에게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쓰마번과 근대적 무기가 필요한 조슈번 사이의 비밀거래를 위한 장(場)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합니다. 카메야마샤츄는 사쓰마번을 주주로 하는 만큼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비밀거래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중개자일 것이며, 그 수장인 료마는 막부 혹은 특정 번의 당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협상의 결과 조슈번은 글로버가 입수해 온 약 7300대의 최신 소총을 필두로 서구식 무기체제를 갖추 수 있었고, 카메야마샤츄 선원들이 이들의 해상기동훈련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테지마에서 나가사키로 건너 온 스코틀랜드의 상인 글로버와 도사번을 탈변하여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도중에 나가사키로 온 료마가 그동안 특별히 대면할 기회는 없었으나 이들은 거대한 전환기를 예리하게 이해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전통적 의미에서 이들은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사람을 끄는 매력으로 번과 신분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기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두 인물의 촘촘하고 넓은 관계의 그물망에 기대는 측면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즈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으나 글로버와 료마의 교류가 더욱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당시 글로버가 영국에 유학 보냈던 조슈5절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카오루가 귀국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었고, 글로버는 이들을 통해 막부 타도의 움직임에 큰 역할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에도, 교토, 사쓰마, 조슈, 그리고 나가사키를 종횡하며 번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번들의 대대적인 근대적 군제 개편이 진행되었던 당시 나가사키에서 무기거래를 하던 두 인물은 계속해서 엮힐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야망은 달랐겠으나 바다를 보고 자라며 고향을 떠나고 더 넓은 세상에서 뜻을 품었던 두 인물은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66 3월 7일 삿초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전통적 막번체제가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새로운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의 연합이 구성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지마에 도착하여 미지의 개척지와 같은 땅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던 글로버는 이제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또한 자신의 숙명의 과제를 끝내고 드디어 새로운 일본을 맞이하는 듯하였습니다.

메이지유신과 두 청년의 막다른 길

막말기 일본의 근대적 군제 개편과 무기거래를 둘러싸고 극적으로

교차점에서 만나게 되었던 글로버와 료마는 이후 다시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료마는 메이지정부 포고문의 초고가 된 선중팔책(船中八策)을 작성하여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정봉환 직후 1867년 괴한의 습격으로 암살당하면서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글로버는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메이지 당국에 협력하여 조선, 석탄, 수산, 철도, 맥주 산업 등에 힘을 써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헌자료에서도, 그리고 이번 답사에서도 느껴지듯 글로버와 료마가 서있던 19세기 나가사키는 대내외적 상황이 얽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제 자리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던 두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써 그때-그곳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사의 첫날밤 구라바엔에서 바라본 야경은 다시 새로운 격변기인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아름답고도 낯선 곳에서의 설렘과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진 3. 구라바엔에서 사랑방 9기와 선생님의 단체사진

참고문헌

Jansen, Marius B. 1961. *Sakamoto Ryoma and the Meiji Restoration*.
New Jersey: Princeton UP.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Thomas Blake Glover
1838-1911*, Edinburgh: Canongate.

植手通有. 1971. “対外観の転回”, *近代日本政治思想史*. 東
京:有斐閣

杉浦裕子. 2012. 幕末期における英仏の対日外交とトマ
ス・グラバー, *鳴門教育大学研究紀要第(27)*

Sidney Devere Brown. 1993.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CROSSROADS 1*.
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검색일: 2017. 12. 01.)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_한일교류박물관

이새라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유난히 날씨가 화창했던 12 월 27 일, 사랑방 9 기의 일본 답사 둘째 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시간을 넘는 긴 이동시간 동안 저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발표를 준비했던 나고야 성과 한일교류박물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나고야 성터 박물관을 볼 생각에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고야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해 축조한 성으로 부산과의 최단거리, 리아스식 해안으로 배를 숨길 수 있는 지리적 이점, 수심이 깊어 큰 선박도 정박이 가능하고 북풍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선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성은 약 1 년 6 개월 정도의 건축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나고야 성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적 거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위한 다실과 일본 전통 연극인 노를 공연하는 무대까지

갖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유홍준 2013, 264-266) 하지만 나고야 성은 정유재란이 끝난 후 권력을 이어받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진 1. 한일교류박물관 가는 길

이러한 나고야 성이 다시 재건된 것은 1976 년의 일 이었습니다. 1968 년 나고야성도 병풍이 발견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사가현은 나고야성 재건에 멈추지 않고 이곳에 한일교류박물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가현 측에 따르면 한일교류박물관은 한일 양국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사부터 현대까지 한반도와 일본의 오래된 교류의 기록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 회복은 비단 사가현만의 목표는 아닙니다. 특히 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양국의 관계회복은 경제와 국내 및 국제정치 방면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FTA 를 발효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실질 GDP 는 각각 9.11%와 10.4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철 2005, 63)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가 국제연합의 체제로 발달하게 된다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아시아가 국제관계에서 갖게 되는 영향력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김홍중 2013, 8)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 FTA 는 한중일 FTA 의 형식으로 여전히 실무협상 중에 있고 동북아 연합 역시 가능성 이상의 실질적인 대화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636 년 통신사였던 임광의 일본에 대한 심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임광과 1636 년 통신사

임광이라는 이름은 아마 한국사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 역시 1636 년 통신사에 관심 갖기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임광은 1636 년 통신사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광은 1579 년에 출생, 인조 2 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풍저창의 직장, 홍문관 수찬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일본에 다녀온 이후에는 병자호란의 여파로 청나라 심양에 가 있던 소현세자의 좌부빈객으로 있다가 그 곳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김상헌이 쓴 비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의 위인이 고상하고 강직하여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납해주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적에 너나없이 두려워하였으며, 일을 만나면 마치 대를 쪼개듯이 먼저 순리적인 것부터 따라갔으므로 사람들이 그 지조를 빼앗을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가는 곳마다 의견이 맞은 사람이 적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257) 이것으로 보아 임광은 성품이 강직하고 올곧은 선비로, 학식이 높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을 으뜸으로 아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광의 1636 년 통신사는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 양국이 이해관계에 따르면 관계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반면, 임진왜란 후 황폐해진 조선과 임진왜란으로 조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 일본이 사적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지요. 동주 이용희에 따르면 당시 한일 관계는 제 3 기인 조선왕조시대 중에서도 중기에 속하는데, 이때 조선의 일본에 대한 심상은 일본의 침략을 오래 기억하고 일본의 무력을 두려워하게 된 것, 또 일본의 해군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된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명분의 없는 불의한 침략이라고 단정하고 일본과 구수(仇讐)의 관계라고 생각하게 된 점인데요, 이러한 관계설정에서 시작해서 조선은 일본의 비문화적(비유교적)인 것을 무식하고 야만스럽다고 생각하며 구수감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용희 1970, 9)

병자일본일기로 본 임광의 일본 심상

임광의 일본에 대한 심상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임광의 일본에 대한 심상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병자일본일기가 있는데, 이는 1636 년 통신사행기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민족문화추진회가 2008 년 국문으로 번역해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임광의 병자일본일기에 나온 임광의 심상은 사치스러운 나라, 무례하고 야만스러운 나라, 군기가 엉망인 나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광은 부산을 출발하여 처음 대마도부 서쪽 좌주나에 도착한 순간부터 대마도주를 만나고 일관산을 유람을 떠나는 모든 여정에서 일본이 격에 맞지 않게 사치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러한 심상이 잘 드러난 부분은 바로 통신사일행의 일광산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일광산의 불당들을 본 임광은

[.....]등성마루의 기와나 처마의 기와는 다 금빛으로 장식했다. 석문에 이르러 보니 마치 우리나라의 홍문 같은 것인데, 두 기둥은 마주 세운 둘레가 각 두세 아름씩이나 되고 8 각(角)으로 다듬었으며 위에 가로지른 것 또한 돌을 사용했는데, 높이는 5 장이 못되지 않고 넓이는 세 칸에 지나지 않았다. [.....] 난새와 봉황은 주조를 동으로 했는지 나무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금해서 빛을 윤택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창호와 난함은 다 금, 은으로 장식했고, 엄박과 유장은 구슬로 꾸미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가지가지 사치를 극도로 해 놓은 형상은 다 기록할 수 없다[.....]하늘은 반드시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데, 처사가 이와 같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민족문화추진회 2008, 83-84)



사진 2. 시모노세키에서 만난 조선통신사 도착지

라며 일본의 사치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광의 지적은 정당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그림과 보물, 그리고 도공들을 데려가는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굉장히 부강한 상태였고, 또 정말 사치스러웠다기보다는 조선이 유교를 따랐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문화였던 불교문화가 금색이나 붉은색 등 화려한 색을 선호한 탓에 느껴진 문화적 차이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야케 히데토시 1996, 211)

일본이 무례하고 야만스럽다는 심상 역시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주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중국의 문화를 흠모하는 이른바 해바라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중국의 문화와 비슷하지 않은 것을 열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희 1970, 15-16) 임광도 이러한 해바라기 현상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불교적 색깔을 야만적이라고 보고 이를 자랑하는 관백에 대해 이를 부끄러워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이웃나라의 사신에게 자랑하려 하는 것은 나무랄 수조차 없을 만큼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문화추진회 2008, 85)

불교에 대한 유학자로써의 인상은 비난할 수 없지만, 일본이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지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야케 히데토시(三宅 英利)의 “조선통신사와 일본(1996)”에 따르면 당대 대 학자였던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경우, 조선통신사 일행을 반겼던 이유는 동등한 위치의 학자로써 지식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고, 조선통신사에게 글을 청했던 이유는 일본이 지적으로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외국의 사신을 대하는 예의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통신사 일정이 끝나고 조선에 돌아온 임광은 인조에게 일본의 군대에 대해 “관백은 군병의 일을 힘쓰지 아니하여 포를 쏘는 일은 완전히 폐지하여서 사람들이 포성을 들으면 놀라 어쩔 줄을 모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조실록 1994, 257) 임광의 일본군에 대한 이러한 인상은 이전과 이후 통신사의 기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병자호란이 없었다면 일어났을 지도 모를

일본에 대한 보복을 염두에 둔 임광의 심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07년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용예를 숭상하고 전진에 힘쓰며, 항상 훈련을 시켜 전쟁이 나면 백만의 병사도 바로 출진할 수 있었다” 고 합니다. (미야케 히데토시 1996, 224)

임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렇다면 임광의 이러한 심상은 양국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또 이 이야기의 결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선, 임광의 심상은 당시의 일본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통신사들의 심상에 근거한 외교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심상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1636년 통신사는 비운의 통신사라고 불릴 만큼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36년 통신사의 주 임무는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탈중화적 가치관의 성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우봉 2011, 37) 따라서 임광의 통신사는 일본의 장군과 노중에게 따로 서계와 예단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일본의 답서에 일본연호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조선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면 굴욕적인 관계를 만들 임무를 띄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들이 1637년 조선에 돌아왔을 때 조선이 병자호란으로 인해 또 한번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이전의 명나라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임광의 통신사가 가져온 일본에 대한 심상이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의 균형자 노릇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임광의 심상은 인조에게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주었고 이에 따라 청나라가 조선에게 일본의 사자를 데리고 오라는 강요를 받았을 때 인조는 적극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가교가 되는 대신 “일본인이 교활하여 조선이 청나라에게 항복한 것을 알면 필시 우리나라를 깔볼 것”을 고민하며 이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야케 히데토시 1996, 224)

현재 우리와 일본의 모습도 이와 많이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 이후 쪽 담보상태에서 도무지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제시대 후 국제정세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했어야 하는 이전의 심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상태가 유지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광의 심상이 조선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일교류박물관을 나서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를 찾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심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일교류박물관이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3. 한일교류박물관 전경

박물관을 돌며 사랑방 친구들과 임진왜란이 시작된 나고야에 한일교류의 뜻을 가진 박물관을 지은 것이 어찌 보면 알맞고 어찌 보면 기발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곳에서 갈등을 끝내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상이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가현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고야 성이 일본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한일교류박물관을 짓는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일교류박물관은 임진왜란을 壬辰倭亂으로, 정유재란을 丁酉再亂으로 병기하는 유일한 일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진형석 2006, 267) 원래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말은 文祿の役(분로쿠노 에키, 분로쿠는 당시 일본 왕의 연호, 에키는 전쟁이라는 뜻), 정유재란을 부르는 말은 慶長の役(게이초노 에키, 게이초는 당시 일본 왕의 연호, 에키는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런 명칭으로는 전쟁이 일어난 년도만 알 수 있을 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교류박물관이 한 것처럼 한자로 병기하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일교류박물관의 역사를 바르게 보려는 노력은 박물관 끝에 있는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전시되어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람객들은 역사 교과서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지나간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해 줍니다.

유난히 날씨가 화창한 날, 알미올 만큼 경치 좋은 곳에 있던 나고야 성터와 한일교류박물관을 방문했던 이 날은 앞으로 일본을

생각할 때 이전과는 다른 심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 이용희. 1970.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8 월호
- 민족문화추진회. 2008. 《(국역)사행록 해행총재 제 5 권》.
서울:한국학술정보
- 후마 스스무. 2008. 《연행사와 통신사》. 정태섭 역. 서울:신서원
- 미야케 히데토시. 1996. 《조선통신사와 일본》. 김세민 역.
서울:지성의 샘
- 김홍중. 2013.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Lessons from European Integration》.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성철. 2005.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경제협력》.
성남:세종연구소
- 하우봉. 2011. “조선시대의 통신사 외교와 의례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8
-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서울:경인문화사
- 유홍준. 2013.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파주:창비

진형석. 2006. 《일본 속 우리문화》. 서울:청년정신

한중일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cnjp/> (검색일: 2017. 12. 9)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홈페이지. <http://www.tongsinsa.com/html/>

(검색일: 2017. 12. 9)

서구를 홀린 동아시아의 매력을 만나다

_큐슈도자문화관

김호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9기 답사 둘째 날의 둘째 일정은 9기 모두가 한번쯤은 왜 끼어있는지 의아해했던 아리타 도자기 마을이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는 이 마을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세계로 전파하는 매개자(Broker)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데지마는 그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1592년~1599년의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은 중국과 조선의 선진 문화를 대폭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산기술은 그 대표적 예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정치 질서에서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화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도자문화권역의 주변부로 편입되었습니다. 큐슈의 아리타.이마리는 초기부터 일본 자기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공간입니다. 아리타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이마리를 통해 일본 내부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아리타의 전통을 이은 도자기에 담긴 점심을 즐긴 후, 큐슈도자문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있는 아기자기한 길 끝에 자리잡은 큐슈도자문화관은 임란 이후 일본 도자기가 밟아온 궤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진 1. 아리타의 전통을 이은 도자기들을 팔고 있는 갤러리 아리타

도자기는 과거 첨단 과학기술의 지표, 즉 권력 측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연구대상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구가 동아시아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 형성된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도자산업은 유용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대화 이전 유교권 천하 질서는 유럽식 주권 국가중심질서와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꽃을 피운 도자산업은 그 교역과정에서 국가라는 단일행위자에 의해서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기장, 고린샤 등의 여러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들어온 VOC 역시도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자 산업은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7~18 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네트워크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가 서구식 질서와 접하기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자산업 역시도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때문에 복합국제정치학적 시각에 따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가 도자산업과 권력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도자기라는 재화의 특성상 그 발전과정이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행위자로서 네트워크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과정과 구조의 양상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드디어 마주한, 조용히 전시되어 있는 큐슈도자문화관의 자기들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자기는 국제정치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도자기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도기와 자기에 한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도기(Pottery)는 유색 태토, 즉 도토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흡수성이 있고 투광성은 없습니다. 자기(Porcelain)는 백색 태토, 즉 자토로 만들어져 1,350~1,550 도의 고온에서 소성한 그릇으로 투명하고 흡수성이 없습니다(미스기 다카토시 2001, 20-26). 우리 답사에서는 도기와 자기 중에 특히 자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자기는 독점공급재, 기술집약재, 문화자본, 소프트파워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동서 교역에 있어서 자기 무역은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상인들은 인도,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도서제도들에서 자라는 향신료나 중국을 비롯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비단 역시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재화와 다르게 자기는 18 세기 초반까지 중국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Finlay 1998, 143). 특히, 1709 년 마이센에서 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서양에서는 자기를 구울 수 없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에게, 자기 제작기법은 오로지 동아시아에서만 가지고 있는 신비한 기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독점공급은 기술적 우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는 역설계나 역공학으로 선도자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형태의 재화가 아닙니다. 조립되는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성과정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변화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김유정 2017, 65). 따라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고는 그 전파가 진행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집니다. 임진왜란을 통한 조선도공들의 일본 유출과 같은 강제적 동원이 아니고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파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자기의 사회적 희소성은 자기가 세계적으로 문화자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화자본의 정의는 문화적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준 2009, 73-75). 부르디외(P. Bourdieu)는 사람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상징적 경계를 구성하고 설명하며, 이를 재생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자본이 사람들을 서로 다른 그리고 위계적인 집단으로 구별을 짓게끔 한다고 보았습니다(Bourdieu, 1984). 유럽 국가들의 아시아 해역 진출의 계기가 되었던 향신료 역시 문화자본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향신료의 경우, 16 세기 이후에 그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엘리트 계층에게서 점차 외면 받았으며 새로운 사회적 기표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로 대표되는

값비싼 식기도구들이 향신료가 하던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중국 명대에는 청화대접 하나의 값어치가 쌀 66 섬과 맞먹었고, 일본에서는 뛰어난 다완 한 개로 성 한 채를 맞바꾸었으며, 서양에서는 작센의 아우구스트 1 세가 동양의 자기 100 점을 얻기 위하여 휘하의 기병대 600 여 명을 프로이센 왕에게 내주었습니다(정수일 2009, 388-389). 도자무역은 기본적으로 재화가 이동하는 현상이지만, 생활필수품이 아닌 고급도자를 선호하게 되는 문화적 취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문화전파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역품과는 상이한 맥락을 지닙니다. 이러한 문화자본과 관련된 논의는 부르디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을 경제적 관념으로 환원하지 말고 권력관계의 표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준 2009, 72).



사진 2. 사랑방 9기 남자들도 홀리는 도자기의 소프트파워

지금까지 살펴본 3 가지 특성은 도자기가 국제적 차원에서는 소프트파워 투사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J. Nye)는 소프트파워를 강압이 아닌 끌림을 통해 다른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Nye 2004, 5-11). 소프트파워는 의제 설정, 매력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도자기는 이 중 매력을 유발하는 문화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소프트 파워 개념은 ‘비물질적 변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리나라는 권력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그려내고 있는 소프트 파워란 자신의 능력이나 보유한 자원으로 측정되는, 그래서 그 효과가 고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유동적인 종류의 권력입니다(김상배 2009, 4-5). 해당 성질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의 길, 글로벌 정치 공간의 확장

인류 역사에서 개별 권역 내에 있어 해양 공간의 활용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지구적 차원에 있어 ‘육지’에서 ‘해양’의 공간적 확장은 16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륙’보다는 ‘해상’ 무역로가 발전하는 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보다 완전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Lim 2011, 44). 이번 답사에서 주목하는 일본 도자기의 전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현대 국제정치학이 기본 전제로 상정하고 있는 근대 국제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대 민족국가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19~20세기보다 오늘날 탈근대 국제질서의 다양한 층위 행위자들이 공존하는 세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델스키(G. Modelski)는 1500 년경부터 글로벌 정치 시스템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글로벌 시스템은 영토 개념에 얽매이기보다 대개 해상, 좀 더 나아가면 공중과 외기권 등 공역을 포괄한 장거리 거래의 메커니즘과 통로들을 규율하는 세계적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적 리더십(World Leadership)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 때의 리더십은 글로벌 상호의존의 층위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독점력과 등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권력의 핵심은 기능적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모델스키는 100~120 년 주기로 세계체제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16 세기는 포르투갈, 17 세기는 네덜란드, 18·19 세기는 영국, 20 세기는 미국이 리더십 국가였다고 봅니다(Modelski 1978). 아리타 도자기의 글로벌 무역시장 편입 및 세계적 전파가 일어나는 시기는 17~18 세기로 당시 글로벌 정치 시스템을 주도했던 네덜란드가 가지는 위치권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할 점은 17 세기 당시 아시아 해상무역을 담당했던 주체는 네덜란드 정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602 년 설립된 VOC 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특허장을 부여받았습니다. 46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특허장은 네덜란드와 동인도 사이의 희망봉 경유 무역을 특허장 발행으로부터 21 년간 회사가 독점할 것을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네덜란드 국회의 이름으로 동인도에 요새를 건설할 권리, 총독을

임명할 권리, 병사를 고용할 권리, 총독을 임명할 권리, 병사를 고용할 권리, 그리고 현지 지배자와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회사에 부여했습니다. 준 국가라고 해도 좋을 존재였습니다. 당시는 아직 현재와 같이 국가와 정부가 정치·군사적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하네다 마사시 2012, 78-80). 그리고 17 세기 세계적 리더십으로서 네덜란드의 권력은 대체로 VOC 라는 대리적 행위자를 통하여 투사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의 지평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권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VOC 가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하는 상황은 먼저 무력을 사용하여 현지 권력을 위협한 동남아시아의 경우와 매우 달랐습니다.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서 VOC 는 표면적으로는 양전하고 선량한 상인의 얼굴을 하고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인이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보인 고압적인 태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저자세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VOC 는 동남아시아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향신료 거래를 독점하려고 했습니다(하네다 마사시 2012, 128-130). 두 지역 사이의 차이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을 단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드파워가 인도양 연안의 국가들에 비해 강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와 버금가는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경우가 대표적 반례입니다. 1644년 VOC는 사파비제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507명의 선원과 452명의 병사를 태운 7척의 군함을 페르시아 만에 파견해 군사력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하네다 마사시 2012, 184-185). 초기에 VOC에 의해 군사적으로 제압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군사적 우위가 영속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바의 경우를 보면 이미 일찍부터 서구의 군사 기술을 도입·적용했고, 오히려 이런 재빠른 군사 기술의 수용이야말로 17-18세기 자바 역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서구의 한 문헌은 마타람 왕조의 지배를 받는 지방민과 네덜란드인들 사이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궁정의 화재로 인한 연기가 더해져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덜란드 군은 머스켓을 재장전할 시간이 없었고 창을 휘두르지도 못했다. 설사 지휘관의 명령을 들었어도 병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군기와 무기를 모두 버리고 도주하였다. 타크 자신도 말에 올라타고 도주하려는 순간 뒤에서 칼에 맞아서 사망하였다.

(Ricklefs 1990)

물론 이러한 현상들을 VOC 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녀를 잠자게 내두어라. 일어나면 세계를 움직일 테니까”라고 말했던 1803 년 나폴레옹 1 세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19 세기 이전 유럽인들은 중국의 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이라는 전면적인 군사력의 충돌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서구권의 평가는 소프트파워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동아시아 권역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네덜란드인들이 도리어 포 제조술을 전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음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포에 포탄을 장전한 후 모든 사람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사를 명령했다. 첫 번째 포탄은 아주 가까이 있는 벼가 심어진 17-18 피트 정도 깊이의 질척한 웅덩이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 포탄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엄청난 힘으로 터졌다. 그래서 진흙과 먼지가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두 번째 포탄은 구포 안에서 폭발하여 사수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고 우리들 모두 조금씩 상처를 입었다. 나무판과 차폐막도 모두 잘게 부서졌다.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우리 대부분은

피범벅이 되었고 특히 사수인 크리스티안이 상처를 입어서 가능한 빨리 휴게소로 데려가도록 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고 때문에 그들이 실험을 중지하라고 명령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우리보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실험을 할 때에는 그런 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법이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Boxer 1931)

소프트 파워의 주요 자원으로는 제도(Institution), 가치(Values), 문화(Culture), 정책(Policies)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당시 서구권이 동아시아의 제도, 가치, 정책에서 매력을 찾았다고 말하기에는 비약이 있습니다. 당시 동서 교역은 정체성이 아닌 이윤에 기초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언급하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비추어보아도 이러한 사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 자원이 소프트파워로 투사되는 요소들이었다면 서양식 국민국가(Nation-state) 모델이 아닌 중국식 천하질서가 근대 국제질서의 기초로 자리를 잡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화들이 전파되어서 역내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쉬누아즈리라고 통칭되는 17~18 세기 유럽의 문화적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도자기와 같은 재화들에서 발현되는 소프트파워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상의 구체적 영향력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자기의 매력은 유럽 내에서 네덜란드의 영향력 강화로 귀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적용한 소프트파워 개념은 ‘관계적 맥락’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자 차원의 작위로 환원되는 권력에 대한 논의에 머물고 있어서, 행위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김상배 2009, 147-148).

VOC 의 도자기 무역 그물망 짜기

네덜란드는 16 세기의 포르투갈보다 유럽 시장에 있어 도자 무역이 가지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교역망을 건설하였습니다. 1619 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VOC 이사회에서는 ‘도자기를 비롯한’ 진기한 물품들을 파는 것이 회사에게 최고의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Volker 1971). 네덜란드에서의 경매가 성공리에 끝난 이후에 VOC 는 도자기의 상품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의 인식은 그들이 구축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구조와 결부되어 일본 도자기의 세계적 전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타도(Estado)’라고 지칭되는 포르투갈의 해외 거점 제국과 비교해볼 때, VOC 는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권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전체 구도에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같은 허브의 기능을 수행한 노드임에도 다른 ‘중심성(Centrality)’에서 유발되는 위치권력을 가집니다. 이때, 중심성은 공간적으로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해상 무역로를 건설했으나 그 방식은 아시아의 기존 상업 네트워크의 일부를 빼앗은 다음 군사력을 이용하여 강제 교역을 수행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재분배 방식이었습니다(Steensgaard 1974). 이러한 방식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네트워크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에스타도는 비록 아프리카로부터 마카오까지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중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프리먼(L. C. Freeman)의 구분을 따르면(Freeman 1979, 215-239) 포르투갈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발휘한 노드였습니다. 연결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된 링크의 숫자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늘림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중심성입니다. 어떠한 형태로건 관계를 맺어서 끊어진 링크가 없어야 다른 노드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상의 노드들과 가장 많이 직접 소통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합니다(김상배 2014, 85). 그러나 포르투갈은 아덴만 지역을 장악하는데 실패하면서 지중해 무역상들과의 링크를 차단하는데 실패했고, 이후 네덜란드 등 신흥국들이 등장하면서 직접 소통에 있어서 우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VOC 는 ‘현지 무역(Country trade)’이라고 불리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체제를 아시아에 구축했으며, 이것은 정치적·군사적 힘이 곧바로 잉여 수취에 쓰이기보다는 새로운 교환 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주경철 2008, 61).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방식은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가지는 노드에 해당합니다. 매개 중심성은 위치 권력의 개념 일반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개 권력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매개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될 노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개 중심성은 노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노드와 노드,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노드군과 노드군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중개 권력으로 통합됩니다. 또 이러한 중개 권력은 주변 노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내용이 무엇이냐, 또는 그 중개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권력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습니다. VOC 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흐름에 호환성을 제공하는 변환자(Transformer)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흩어진 수요를 반영하여 도자기를 주문함으로써 도자 문화의 급격한 발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시아 해역의 수많은 상관을 네트워크로 엮어 역내 무역을 전개하는 것이 VOC 사업의 특징이었습니다. 각지의 수요를 고려하여 교환할 때마다 이익을 보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17 세기 중반 이후에는 유럽-아시아 간 무역과는 별도로 아시아 역내 무역만으로도 회사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의 핵심은 형식이 다른 것들에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김상배 2014). 이러한 권력관계는 글로벌 도자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성되었습니다. VOC 는 유럽 각국 내부에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던 도자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아시아의 소프트파워를 네덜란드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사진 3. 일본 도자기에 남아있는 포르투갈인들의 흔적

명·청 교체기가 뒤바꿔놓은 일본 자기와 VOC 의 만남

처음 히라도와 데지마를 통해 일본 도자기 무역 네트워크가 VOC 와 연결되었을 때에 일본은 순수입국의 지위에 놓여있었습니다. 1631 년 히라도 상관의 상인 반 네옌루드(Van Neyenroode)가 쓴 편지를 보면 중국 정크선을 통해 들어온 도자기들을 나가사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Volker 1971, 118). 그러나 1592 년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도공들을 통해 일본 도자산업 역시 자생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도자기 제작에 있어 필요한 산화코발트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데지마 상관의 VOC 기록에 의하면 1651 년 500 캐티의 분량이 수입되었고, 1658 년에는 중국 도자기의 수입 없이 산화코발트만 1340 캐티가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VOC 상선은 데지마로부터 일본 도자기를 수출품으로서 신고 출항하기 시작합니다(Volker 1971, 125-128). 1641 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추방되고, 네덜란드 상관 역시 히라도에서 데지마로 이전된 이후, 데지마는 사실상 일본 도자기의 유일한 공식적 수출창구였습니다.

이렇듯 동아시아 도자문화권의 변방에 머물던 이마리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약진하게 된 것은 명·청 교체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청은 명을 무너뜨렸지만, 그 잔당들은 중국 대륙 곳곳에서 저항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력은 중국 남부 해안과 대만의 정성공이었습니다. 청은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금령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정성공 세력이 VOC 사절이

무역 재개를 위해 청의 황제를 예방하였다는 이유로 항구를 폐쇄하고 VOC 의 대 중국 무역 거점이었던 대만의 상관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국 무역이 불가능해지자 VOC 는 데지마를 거점으로 일본 도자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1653-1682 년 일본 수출 도자기는 중국 경덕진 도자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4. 큐슈도자문화관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의 도자기

1959 년 5 월 27 일 바타비아에서 데지마로 띄운 편지는 35,000 점의 도자기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수량의 주문을 요청한 편지가 같은 해에만 2 통 정도가 더

발견됩니다. 이후 1660 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수출량이 중국의 수출량을 압도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80 년 이후, 중국의 해금령이 해제되기 이전까지 일본 도자기는 글로벌 도자 무역 네트워크의 주요 재화로서 자리잡았습니다(Volker 1971).

그러나 일본 도자산업은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공급의 불안정성과 높은 가격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경덕진과 달리 이마리·이마리는 특히 대형 도자기에 있어 대량생산의 역사가 비교적 짧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이마리부터 데지마까지의 운반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직접 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개비용 역시 가격 인상에 반영되었습니다. 때문에 1683 년 이후 중국 경덕진이 재건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VOC 가 중국 자기 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역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09 년 일본 사료에 의하면 82,275 점의 도자기가 수출되었으나, VOC 자료는 오로지 9,820 점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12 년의 경우, 일본 사료는 179,246 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VOC 기록에는 한 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Jorg 1982).

세계 정치에서 일본 도자기의 전파와 공진

16 세기 말에야 처음 제작되기 시작했음에도 17 세기 일본 도자기는 유럽에서 중국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색채 변화 등에 힘입어 중국 자기들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해냈습니다(Finlay 1998, 159). 이마리 도자기는 크게 고이마리 양식, 가키에몬 양식, 이로나베시마 양식의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 이로나베시마 방식은 국내 진상용으로 시판되지 않았기에 수출용 도자기는 앞의 두 종류였습니다. 고이마리 양식은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초기 양식입니다. 조금 더 일본 특유의 색깔을 가진다고 하는 가키에몬 양식은 여백을 능숙하게 남기면서 주로 매화 등의 초화문, 때로는 인물문 등이 그려졌으며 적색, 옅은 청색, 녹색, 부분적인 금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채화자기였습니다. 가키에몬 양식은 본래 내수용으로 생산되었으나 유럽인들의 취향에도 부합하여 수출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유럽 자기들이 모델로 삼은 것은 가키에몬 양식이었습니다(Schiffer 2007, 271). 경덕진이 힘을 되찾아 유럽 수출을 재개할 무렵부터 유럽에서는 청화백자 유행이 수그러들고 채화자기가 환영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초기의 쉬누아즈리는 하얀 바탕에 남색 문양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동경을 북돋우었지만 프랑스 문화를 중심으로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이 유행함에 따라 더욱 화려한 것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10 년 이후 마이센에서 유럽 자기가 생산될 때도,

처음에는 중국풍의 적색 자기나 백자 관음상 등을 만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이마리 도자기, 특히 가키에몬 양식의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후 일본의 가키에몬 디자인이 마이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미스기 다카토시 2001, 108-171). 서구권이 주요 시장 중 하나였던 경덕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자 무역 네트워크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도자기를 그대로 모방한 ‘차이니스 이마리(Chinese imari)’가 일시적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서구와 중국, 일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도자문화 발전에 있어서 공진(Co-evolution)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서구권과 동아시아권의 길목인 동남아시아에도 일본 도자기는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VOC 는 이러한 무역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아시아 역내에 유통되는 일본 자기의 양은 유럽에 유통되는 양을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VOC 의 쇠퇴와 변화하는 일본 도자기의 성격

VOC 는 17 세기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세계 리더십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1680 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내 VOC 의 위치권력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만 상관을 정성공에게 빼앗기며 중국 무역의 거점을 잃었고, 일본의

도쿠가와 정권 역시 무역량 제한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나아가 18 세기가 되면서 정세가 불안해진 페르시아에서 금과 은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VOC 의 아시아 무역은 적자로 전락하고, 본국에서 귀금속을 반출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하네다 마사시 2012, 275-277).

게다가 도자기는 점점 유럽에서 그 상대적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1658 년과 1660 년, VOC 이사회는 도자기를 포함한 낮은 중요도의 물품들은 공개 경매를 통해 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1682 년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도자기는 경매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Volker 1971, 118).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도자기 무역의 수요와 이윤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일본 도자기는 1757 년 공식적으로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도자기는 주로 내수용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나오며: 21 세기 소프트파워로서의 도자기

앞선 시대의 양상들을 살펴볼 때, 17~18 세기에 도자기가 가졌던 소프트파워 투자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글로벌 무역 도자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점차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희소성의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19 세기 몇 차례의 세계박람회 이후, 일본의 도자기는 유럽인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선보였고, '자포니즘(Japonisme)'이라는 새로운 수요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도자기가 소프트파워의 매개수단으로 재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권력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식 문명표준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여 근대 국제질서 속에서도 더 이상 타국의 위치권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로서 일본의 네트워크 내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탄생한 독특한 도자기들은 다시 한번 유럽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로서의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위자의 행위 능력이 유의미해지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 내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때입니다(김상배 2014, 75-77). 따라서 구조로서 글로벌 도자무역 네트워크와 개별 행위자의 무역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조망해야 그 실체를 제대로 조망할 수 있겠으나, 아쉽게도 현재 일본 내부 도자 네트워크 발전과정에 대한 사료들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조슈번, 사쓰마번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본의 선례는 현대 한국의 도자문화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집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도자문화는 과거의 유산이라는 좁은

범주의 논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권력 자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 리치(B. Leach)는 “현대 도예가 나갈 길은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이미 다 제시한 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매력국가를 외치고 있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한류’를 위시한 대중문화에 편중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급문화의 대표주자로서 여전히 자리를 매기고 있는 도자문화를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사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고려와 조선의 도자기지만 이미 세계의 전문가들로부터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큐슈에서 만난 17~18 세기 VOC 와 일본 도자문화는 21 세기의 대한민국에게 소프트파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5. 큐슈도자문화관 앞에서 시연한 사랑방 9 기의 행위예술

참고문헌

- 김상배. 2009. “서론: 소프트파워와 21 세기 권력.” 《소프트파워와 21 세기 권력론의 모색》, 김상배 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상배. 2009. “결론을 대신하여: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소프트파워와 21 세기 권력론의 모색》, 김상배 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유정. 2017. “17 세기 일본 도자의 등장과 무역시장 변동의 동학 - 기술과 문화 전파의 국제정치경제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미스기 다카토시. 2001. 《동서도자교류사: 마이센으로 가는길》. 김인규 역. 서울: 놀와.
- 정수일. 2009.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서울: 살림출판사.
-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하네다 마사시. 2012. 《동인도 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이수영·구지영 역. 서울: 선인.

- 한준. 2009. “소프트파워와 문화자본, 그리고 정체성.”
《소프트파워와 21 세기 권력론의 모색》, 김상배 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xer. C. R. 1931. "Notes on Early European Military Influences in Japan, 1543-1853".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2nd series, VIII.
- Finlay, Robert. 1998.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9(2).
- Freeman, Linton.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 Jörg, Christian. J. A. 1982. *Porcelain and the Dutch China Trade*. The Hague: Martinus Nijhoff.
- Lim, Tai Wei. 2011. “Re-centering Trade Periphery through Fired Clay: A Historiography of the Global Mapping of Japanese Trade Ceramics in the Premodern Global Trading Space,” *Sino-Japanese Studies* 18.
- Modelski, George.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2).

Nye, Joseph.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Ricklefs, Merle. 1990. "Balance and Military Innovation in 17th-Century Java", *History Today* XI.

Schiffer, Nancy. N. 2007. *Japanese Porcelain: 1800-1950*. Atglen: Schiffer Publishing Ltd.

Steensgaard, Niels. 1974. *The Asian Trade Revolution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East India Companies and the Decline of the Caravan Tra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ker, T. 1971.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Leiden: E. J. Brill.

Waging a Nerve War in Asia-Pacific Theater:
The United States vs. People's Republic of
China

_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오다열

와세다대학교

들어가며

규슈 지방은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 개의 거대한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남서부에 위치하는 규슈 지방은 오랫동안 서양제국과 조선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기에 규슈는 일본의 국제정치적 틀과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히 방문을 해야하는 장소입니다. ‘왜 일본은 중국 그리고 한국을 제치고 가장 먼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12 월 26 일 사랑방 9 기는 연구답사의 길을 나섰습니다. 평소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했던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정치학에서 규슈지방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2017.12.27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앞에서 사랑방 9기 그리고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규슈의 북서지방을 돌면서 저는 규슈의 일본 지도자들은 무엇을 보고 깨닫고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4 면에 접한 바다, 천황과 막부의 권력 경쟁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꽃을 피웠던 일본 근대화의 지도자들은 변해가는 세계의 힘의 구도를 어떻게 읽었던 것일까요? 한국에서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실패한 반면, 왜 일본은 비교적 평화로운 문명의

근대화를 이룩해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질문이 2박3일의 답사 기간 동안 저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태평양전쟁과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증오심을 가졌었습니다. ‘어쩌면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양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적대감에 둘러싸인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도 존재하지 않지 않았을까’, ‘왜 하필 서양의 부국강병 패러다임이 일본에 가장 먼저 닿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방문을 통해 이런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일본의 국제정치의 시작은 ‘모방’ 그리고 ‘창작’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서양제국들의 모습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던 일본의 지도자들은 외부세력들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그들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2.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기념촬영부스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을 처음 방문했을때 무엇보다 저의 두 눈을 의심했던 것은 일본이 영국 그리고 미국의 해군 기술력을 흡수해 강력한 해군을 구축한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보유해왔던 구축함, 항공모함, 해군전력 자산, 그리고 무기들을 자세히 분류하고 나열한 그들의 노력을 보며 한편으로는 경이로웠으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으뜸가는 해군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처지, 그리고 현재 방위의 목적으로 창설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일본제국주의 해군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그들의 역사적 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는 해상자위대와 미해군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알아보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은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3. 사세보 미해군기지 공중 촬영 사진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종합해본 결과, 저는 사세보 미해군기지는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동북아의 안보와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7 태평양 함대의 주력은 오키나와(沖繩)와 요코스카(橫須賀)에 위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중국의 팽창주의에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어떤 전략의 카드를 쥐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이 현재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관련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세보 해군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무대에서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이 해상 영유권갈등의 중심지로 변화하였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세보 해군기지가 왜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싸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게 될지 적어놓았습니다.

2 박 3 일 동안의 일본현장답사, 그리고 5 개월 동안의 토론과 배움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국제정치의 방향을 현실주의 시각에서 풀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저의 생각의 지평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시각이 앞으로 국제정치를 접할 사람들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이해하고 이끌어주셨던

하영선 선생님과 사랑방 9 기에게 감사함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I. Overview

In the midst of escalating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regarding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has been a speculation that such discord will embark a conflict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Unbeknownst to how the future of the Pacific theater will unfold, it is evident that whoever establishes a steadfast presence in the area will maintain or inherit the title of 'Global Hegemon'. The rationale behind this statement is that Asia-Pacific theater is widely recognized as a central hub for various activities, it is the focal point that facilitates maritime free-trade, harbors diverse marine lives and resources, and serves as a strategic location for maritime military operations. The future and the well-being of the rising power, PRC, hinges on the guaranteed access to those functions. In response to this underlying significance, PRC has been painstakingly working on improving and expanding its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However, it is also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in the region to procure continued access to the area, it is inevitable that the current status quo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undergo turbulences.

In this paper, I will be writing about apparent and hidden interests coexisting in the Asia-Pacific theater, in particular, South China Sea. To illustrate, I will explain what constitutes the dispute in that strategic location,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the region, and the strategies of the main actors. Branching off from the main actors' strategies regarding the Asia-Pacific region, I will further relate Sasebo naval base as a strategic opt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dopt countering PRC's rapid arma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lthough Sasebo Naval Base no longer goes first in the strategic importance with the current military affairs in US-Japan alliance, its importance will escalate once Asia-Pacific region encounters a shift in the status quo.

II. Asia-Pacific Theater (South China Sea)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current estimates on the South-China Sea, it alone accounts more than 10 percent of global fisheries production and approximately 11 billion barrels and 190 million cubic feet of natural gas

**Why the South China Sea Matters:
By the Nu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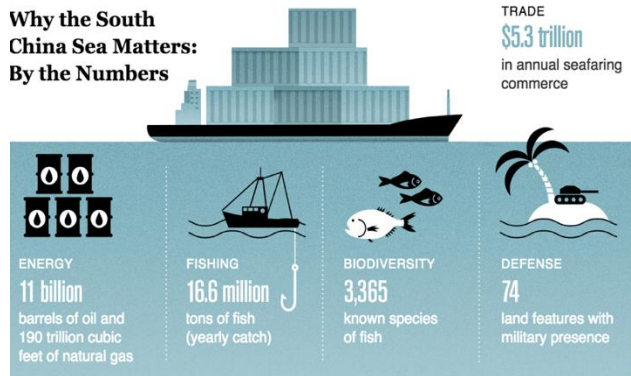


Figure 1. Why the South China Sea Matters, by the Numbers

oil reserves (US DOD 1). But most importantly, two-thirds of the world’s oil shipment transit via international waterways in India-Asia-Pacific region (US DOD 2). Due to the material and commercial significance in the area, freedom of commercial transit has been protected at all costs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deploying maritime forces in the region not only safeguards the commercial transit but it also establishes security interests. To elaborate, deploying military assets in the region functions as a security deterrence, undercutting possible threats before it escalates. With respect to newly acknowledged economic and military interests,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been officially announced its role as a mediator in the region, there have been multitudes of territorial and economic disputes among the nations from Asia-Pacific region.

PRC, in particular, has been flexing its naval muscles to expand its sphere of influence. Currentl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r Law of the Sea Convention, it grants sovereign nations with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EZ is a sea zone that grants rights for a country

to exploit the zone economically that extends 200 nautical miles from its coast to the baseline (UN Article 56). However, granting the right has raised many doubts when mainly China and other nations started to create artificial reefs. Putting artificial reefs under the protection of EEZ is still a debatable case, potentially raising disputes among n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Besides the exclusive economic right, the rule of law in the sea dictates that the freedom of the seas; permitting foreign vessels including the military to freely navigate the international wate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14). However, applying and interpreting the rule of law in the sea differs among the Asian-Pacific nations, generating military disputes as well. All in all, the Asia-Pacific maritime and material disputes can be largely accredited to the rising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region, militarization, and the vagueness of the law in the international waters.

III. Main Actors in the Asia-Pacific Theater

In spite of various nations having complex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I will especially focus on the two main power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C. These two powers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1) A nation that has relatively bigger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linked to the Asian-Pacific theater; 2) it owns military capabilities that could possibly tip the balance of power in Asia-Pacific region.

Linkage of Interest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nts to ensure the Asia-Pacific region’s continued economic progress... Eight of the world’s 10 busiest container ports ar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lmost 30 percent of the world’s maritime trade transits the South China Sea annually, including approximately \$1.2 trillion in ship-borne trade bound fo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of America,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s it is clearly mentioned in the report, the United States has economic incentives to safeguard the maritime trade and improve military readiness in the region thereby eradicating possible adversaries disrupting the free flow of trades in the region.

Not only the economic significance, but the Asia-Pacific theater is also the United States’ main theater of operations with her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Japan, Republic of Korea, The Philippines, Thailand, India, Indonesia, Malaysia, Mongolia, New Zealand, Singapore, Sri Lanka, and Vietnam (US PACOM 2017 25-29). As an acknowledged global hegemon, the United States has linkages of security interests to protect her allies from any potential threat and uphold the rule of law that goe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Linkage of Interests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s

unprecedented level of growth in the economy has raised an alarm against the politburo leaders the urgency of securing energy resource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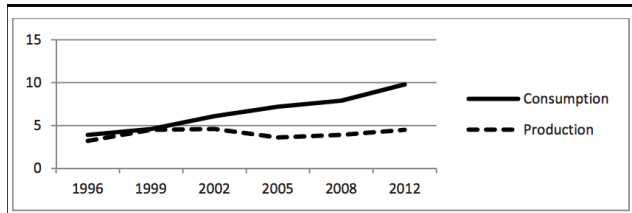


Figure 2. PRC’s Energy Consumption & Production Growth

In response to the mounting energy needs, they have been searching means to constantly run their industry engine. Unfortunately, along with the heavy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supplies, the current economic diagrams already point the PRC’s waning growth in the economic power. Yet still increasing, the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and ineffective domestic policy lead to decrease in economic growth in PR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7 3). The worsening circumstance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issues in PRC not only necessitated the decision makers to devise a sustainable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 that could substitute the imported fuel, it also

enforced the leaders to acquire safe energy transit free of foreign interference (Erickson 2017 131-152). This volatility puts PRC to set adamant policy acquiring military stronghold in Asia-Pacific region where its secure logistics transit can take place.

Moreover, the current research on natural resources has confirmed that the natural resources hidden under the sea bed of South China Sea could become a game changer for PRC, for it could vitalize and provide constant flow of energy production in the future. To be specific, in 2011, the PRC government has positive conjectures that the region will serve as a “Second Persian Gulf”, supplying over 213 billion barrels of oil (Blazevic 2012 84-85). China estimated over 100 billion barrels of oil buried under the Spratly Islands and another 100 billion barrels of oil under the rest of the seabed in the South China Sea. Although the estimates seem somewhat exaggerated contrary to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South China Sea, it still plays a role in reducing PRC’s reliance on foreign energy impor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aintaining the constant supply of energy resource is the primary concern for all nations. Therefore, securing and expanding its sovereignty over the region is the stepping stone that PRC has to take in order to stay on top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PRC politburo also views their marital and diplomatic actions in the sea from historical terms; their decisions are overdue response to the century of humiliation that China has gone through. In other words, setting aside the energy potential in the region, PRC leaders perceive security significa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is because China was helpless and disadvantaged in deterring the hostile nations from encroaching in their sovereign territory in the past (Blazevic 2012 80). Throughout the history of China, it is not hard to comprehend PRC’s motivations and political discourse that come from the long records of foreign invasion via the South and East China Sea.

To sum up, there are complex reasons including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nd historical context that account PRC’s obsession towards the Asia-Pacific region, especially South-East China Sea. Therefore, it is rational enough for PRC to relentlessly endeavor to

break the balance and establish a different paradigm in the region that is favorable to them.

Military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figure 3.1, it shows that Asia-Pacific region is the congregation of military powers that could escalate into a major war if not contained. It is important to note China's growing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lthough the figures are not enough to pinpoint the modernization of PRC military, the figure alone yet sufficiently accounts that PRC surpasses oth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Moreover, since I am mainly concentrating on the naval powers in the region, PRC by far has a great number of Naval personnel and assets that could tip the balance of power in the Pacific if they are destined to do so.

I will further analyze another major actor, the United States. Figure 3.2 shows the number of the US military personnel and assets deployed in the Asia-Pacific region. Although the figure does not indicate the level of military modernization, it at least gives the rough numbers that the United States forces serve as a major contestant of PRC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elaborate, the United States primarily deployed its troops and assets on the East side of the Pacific theater; US Military powers in Japan, Guam, Hawaii, and South Korea are detrimental to the region's balance of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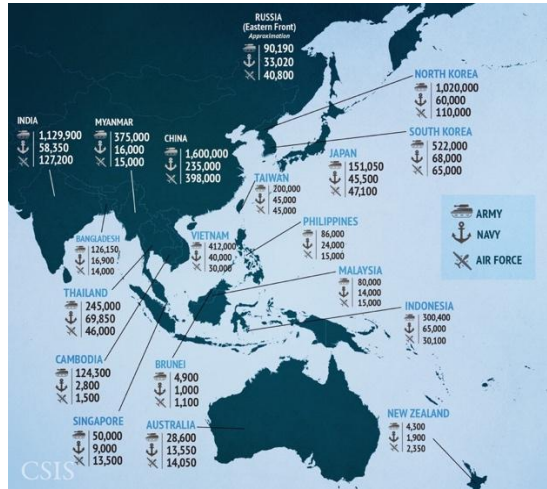


Figure 3.1.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at the potential conflict in the Asia-Pacific will not escalate between the two major powers, but a bipolar conflict led by the two major powers and their allies. In this respect, the sheer consequence of break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will not only mark an end to the safe transit of goods accompanying diplomatic hostilities in the region, but also possibly engendering irreversible conflict that could destroy the entire area.



Figure 3.2: US military personnel deployed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has officially announced its prime objectives in the Asia-Pacific: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 seas, deterring conflict and coercion, and promoting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DoD 2015 1). The executive reckons Asia-Pacific's role of continued economic progress not only for the region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to safeguard economic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stablish its stronghold presence to prevent any crisis from disrupting the status quo. In addition, bearing in mind that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in the interests of all nations, The United States articulates that any potential spill-over effect incurred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intolerable (USPACOM 2017 2). To be specific, any allies or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deeply influenced if the order in the region is disrupted thus crippling the

commercial transit. Last but not least, the United States upholds international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perpetuat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rigid adherence to uniform rules enables peace among the Asia-Pacific nations under the guidance of the United States.

While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olds the strategic advantage over other pow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pointing PRC as one of their challeng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important (USPACOM 2017 5). Admiral Harry B. Harris, the commander of U.S Pacific Command mentioned that “If USPACOM has to fight tonight, I don’t want it to be a fair fight. If it’s a knife fight, I want to bring a gun. If it’s a gunfight, I want to bring in the artillery of our allies.” The reason why I quote this statement i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ttempting to break through its critical shortcomings present in the region: rapid militarization/fortification in the region especially PRC, critical munition shortages, and budget uncertainty.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seeks to make use of diplomacy and strategic alliance to safeguar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stress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US-JP-KR) and Multi-Domain Battle (MDB) system.

In a nutshell, despite the growing power of PRC, the United States has been using means at its disposal to maintain strategic superio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s ‘one belt-one road’ initiative dictates expanding its leverage on other nations by establishing economic and military 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ohan 2017). This policy is mainly intended to under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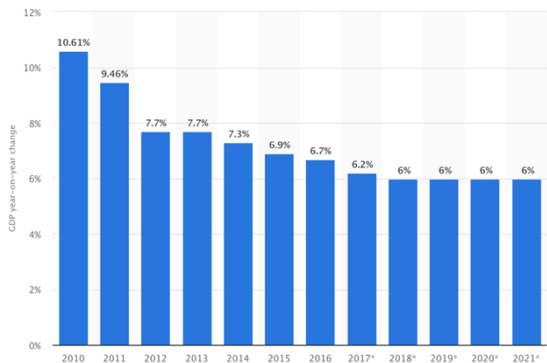


Figure 4. China growth rate of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United State's influence on the Asia-Pacific theater by connecting the two main channels of commerce: the land-based Silk Road Economic Belt (SREB) and the ocean-based Maritime Silk Road (MSR). To illustrate, the initiative invites n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s to cooperate and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PRC; a bold move targeting a decrease in overall influence that the United States has over the region.

However, the economic situation in PRC is not as bright as it seems due to heavy governmental regulations on the domestic market (U.S-China ESRC 2017 1).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pros for such policies, the government has indirect control over the private entities thus allowing systematic advantage to extract core intelligence from the world market,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U.S-China ESRC 2017 2). PRC's economic future heavily relies on the constant flow of foreign resources, especially on fossil fuels. This urgency implies that PRC has utmost interest in securing safe energy transit and safeguarding the commerce channels. However, PRC currently lacks in a strategic alliance to defend the region, which incentivizes them to construct and fortify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leadership in PRC believes that the fortification of the Spratly Islands rules out potential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because it acts as a deterrent effect on other claimant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Martinson 2017). On top of that, shrewdly counter-balanc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long sat PRC's maritime dispute strategy, which accounts the incongruities in Chinese behavior. The current leadership views the balance of power is slowly tilting towards their advantage thus making America more assertive and restless in the Asia-Pacific International Politics. They believe that the scale and intensity of any future crisis can be kept under control, the current government does not seek any disputes from escalating because it could imperil the current period of "strategic opportunity" (Martinson 2017).

PRC has been expanding its naval capabilities by adhering to the two main strategies: improving naval powers and adopting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Forces. The figure 7.1 and 7.2 below point PRC's increased naval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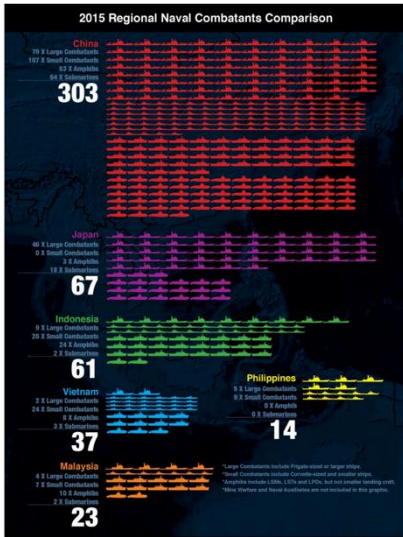


Figure 5.1. 2015 Regional Naval Combatants Comparison



Figure 5.2. 2015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Comparis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Forces or Coast Guard Units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worth noting because it indicates that all claimant states are expanding their non-military asset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the figures verify that PRC is pursuing protracted war, “long-term, patient and comprehensive contest to master the strategic initiative” which allows PRC to evade any military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Martinson 2017). By shunning unnecessary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his allows PRC to acquire some time; increasing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e region and improving military capabilities that would equally match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likely future.

To sum up, PRC is expansionary in aim, incremental by design, and realist in orientation. The future of PRC relies deeply on the area

because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re too big to overlook. Rather than merely using military powers to influence the region in an abrupt manner, PRC has chosen an initiative that perpetuates soft and real powers. By building economic relationships and promoting ‘protracted war’ that will painstakingly off-balance the United States’ leverage on the Asia-Pacific theater, PRC leadership is looking forward to becoming the new hegemon in the region.

IV. US Fleet Activities Sasebo

The US Fleet Activities Sasebo epitomize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though the current mission and objectives of the naval base do not clearly indicate its potential uses during any times of security crisis in the Asia-Pacific region, I foresee that the US Fleet Activities Sasebo can transform into a major location for U.S. Marines amphibious operations.

Sasebo port harbors vessels of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s and the United States Seventh Fleet. Its prime objective is to provide logistical support to the naval

power especially ships for amphibious operations (CNIC Commander Fleet Activities Sasebo History 2017). The ships that are currently homeported at Sasebo are USS Essex (LHD-2), USS Tortuga (LSD-46), USS Harpers Ferry (LSD-49), USS Denver (LPD-9), USS Avenger (MCM-1), USS Defender (MCM-2), USS Guardian (MCM-5) and USS Patriot (MCM-7) (US Fleet Activities Sasebo Project Overview 2017). These



Figure 6: The geographic location of Sasebo

ships all fall into the group of amphibious mission capability. Since 1889, Sasebo Naval Base has long been serving as headquarters for the Imperial Japanese Navy's Third District, employing over 50,000 people to facilitate naval operations in the Pacific and building naval vessels during the peak of World War II (World Port Source 2016). On September 1945, after the surrender of Imperial Japan and their counterparts including the Japanese Imperial Navy, the U.S. 5th Marine Division landed at Sasebo and the port formally functions as U.S Fleet Activities Sasebo as of now. Sasebo used to be a small fishing village until Imperial Japanese Admiral Togo Heihachiro decided to found the place as a Sasebo Naval District due to its geographical advantages. Sasebo is a natural fortress that could fend off foreign powers strategically; it is also a deep-water harbor, its close proximity to China and Korea account the reason why Sasebo was chosen as a major naval base to the end of the World War II by the Japanese military leadership (CNIC 2017).

To briefly lis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US Fleet Activities Sasebo, the port has long since been serving as the main launching point for the United Nations and the U.S. Forces during the Korean Civil War in 1950, homeporting Self Defense Forces after the Korean War, providing heavy support to the expanded U.S. Seventh Fleet during the Vietnam War in the 1970s, and playing a vital logistics role during Operation Desert Storm in 1990-1991 (World Port Source 2016). In this respect, the history of Sasebo explains its underlying features: a full operative naval base that could serve beyond the functions of logistical support, the main transfer or the starting point for the amphibious attacks in the Asia-Pacific theater. Although some may not agree my conjectures, it is evident that the Sasebo's capacity is maintained in its lowest level. Therefore, it is rational enough to think that once the security in Asia-Pacific region is at peril, The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in the Pacific have a reliable naval base on their side waiting to be ran fully operational.

V. Conclusion

Asia-Pacific region is the vital channel for global commerce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each nation's economic activity and success. However, beyond economic interest in the region, PRC's future hinges on securing and expanding its foothold in the region for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curity interests as well. While both superpowers are waging a war without an actual fight, they are using any means at their disposal to contain each other in the Asia-Pacific theater. Since PRC has been fortifying military powers in the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claiming its 'one belt-one road' initiative which projects China's economic power,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also has an option to fortify locations bearing strategic advantages like Sasebo Naval base. Regardless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nations, I stand in the realist point of view that there will be an ongoing war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whether it escalates into a full-scale military war or not, until one relinquishes its power to the other.

Referenc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Defense. 2015. *Th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United Nations, 28 April 2011. *Part V –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56 Law of the Sea*.

Statement of Admiral Harry B. Harris Jr., U.S. Navy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26 April 2017.

2017 Report to Congress of the U.S. –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November 2017, One Hundred Fifteenth Congress First Session

Andrew S. Erickson and Austin M. Strange, 2017. *China's Resources Drive into the South China Sea*, New York: Lynne Rienner (2017), Page 131-152.

Jason J. Blazeovic, 2012. *Navigating the Security Dilemma: China, Vietnam, and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Page 84-85

Usman W. Choha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17. *What is One Belt One Road? A Surplus Recycling Mechanism Approach*

Three PLAN Officers May Have Just Revealed What China Wants in the South China Sea, Ryan Martinson and Katsuya Yamamoto, The National Interest (5th December 2017)

CNIC Commander Fleet Activities Sasebo History, Official US Navy Website,
https://www.cnic.navy.mil/regions/cnrj/installations/cfa_sasebo/about/history.html

US Fleet Activities Sasebo Project Overview, Naval Technology,
<https://www.naval-technology.com/projects/usfleetaactivities/>

Port of Sasebo Review and History, World Port Source (17 March 2016)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JPN_Port_of_Sasebo_1413.php

5 장

청은 왜 청일전쟁에 참전했을까 _일청강화기념관

김동진

칭화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9 기의 일본 답사 마지막 날인 2017년 12월 28일, 우리는 일청강화기념관(日淸講和記念館)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은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종결 짓기 위하여 모인 곳으로 바로 이 곳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에 내린 직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기념관 바로 옆에 위치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곳은 일청강화회담이 열릴 당시에도 이토 히로부미의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외관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간몬 해협에 바로 맞닿아 있어 좋은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아담한 숙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안방과도 같았던 이 곳에서 평화롭게 묵으며 당시 나이가 70이 넘었던 이홍장과의

담판을 당당하게 이끌어나가던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의 흉상

반면 이홍장은 마지막까지 회담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토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하루라도 빨리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했던 이홍장이 이토의 요구대로 시모노세키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어찌면 일본이 주도하는 협상의 일방적인 흐름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약이 체결됩니다. 오랜 시간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였던 청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가졌던 이홍장이 자신보다 20 살 가까이 어린 이토와의 협상을 위해서 변방 나라에 직접 온 것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저물어가는 청나라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진 2. 일청강화회담이 열렸던 장소

청일전쟁은 이처럼 청나라에게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국제정치사를 통틀어보아도 동아시아 지역에 청일전쟁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전쟁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5 천 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중국 주도의 지역 질서가 청일전쟁과 그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인해서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일 양국은 강화조약의 첫 머리에서 “청국은 확고부동하게 조선에 완전한 자주 독립권을 허락한다. 이제부터 청국에 조공하던 전례를 앞으로는 이제 폐지하여 독립 자주 권리와 예절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청나라와 조선과의 전통적인 속방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승만, 2015)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조공질서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일본이 추구했던 서양의 자본주의와 만국공법의 원리, 즉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체제가 도래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중국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의 본격적인 침탈을 겪으며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수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강병론적 근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이후 러일전쟁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청일전쟁은 중국이 5 천년 간 지속해오던 지역의 패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겨주게 되는 종착점이자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그 시작점으로서 중국인들에게는 치욕과 수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청일전쟁이 중국에게 역사에 손꼽힐 만큼 치욕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전쟁이었다면, 청나라는 청일전쟁에 왜 참전한 것일까요? 모든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의 이익으로 추구한다는 국제정치의 기본 상식에 기반하여 볼 때, 어느 국가도

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나라 역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패배를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것일까요? 만약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일청강화기념관 답사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를 청나라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하여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사진 3. 일청강화회담 당시를 묘사한 그림

1894년, 청일전쟁의 시작

청일전쟁 발발의 중요한 배경은 동학농민운동과 천진조약입니다. 1894년 당시 조선의 봉건적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던 폐단에 반발하여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였고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894년 6월 3일 청나라에 구원병 파병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로서는 속방의 관계였던 조선이 도움을 요청할 때 군사를 파병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나 문제는 10년 전인 1885년 4월, 갑신정변 수습을 위해서 체결되었던 천진조약에서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앞으로 조선에 대한 출병을 할 때에는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10여년 동안에는 조선에서 특별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나라가 조선에 군사를 파병할 일이 없었는데,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약 2000명의 군사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는 천진조약에 의거하여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였고, 일본은 이에 곧장 더욱 많은 군사를 조선에 파병하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해결되자 청나라는 자신들의 파병은 조선 정부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양군의 공동철수를 제안하지만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의 철병 제안을 거절하는 절교서를 보냅니다. 결국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조선 왕궁을 점령하고 7월 25일에는 풍도에서 청나라 해군에 기습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후 8월 1일, 일본과

청나라는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며 청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승만, 2015)

청나라가 전쟁의 기운을 감지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서 철병이 불가하다는 2 차 절교서를 보낸 1894 년 7 월 14 일 이후입니다. 이틀 뒤인 7 월 16 일, 청나라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던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은 이홍장에게 즉시 전쟁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고정룡, 대일, 2008)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청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전쟁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7 월 전후에 열린 청나라의 어전회의를 살펴보면 관료들이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토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기장, 1989) 가장 의외인 사실은 북양군의 지휘관으로 청일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이끌었으며 당시 청나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홍장이 일본과의 전쟁을 가장 격렬히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에 개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마지막까지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량치차오, 2013) 그렇다면 전쟁을 주장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당’이라고 불리는 정치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서태후와 이홍장의 반대 세력으로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1894 년, 청나라 내부를 들여다보다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의 국내정치적 상황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광서제로 대표되는 ‘제당’과 서태후의 ‘후당’ 사이의 경쟁입니다. 1894 년은 서태후가 오랜 섭정을 마치고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한지 5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사권과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등 권력의 핵심은 서태후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서태후의 정치적 기반 세력인 후당 역시 청나라 정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광서제를 중심으로 한 제당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당의 관료들은 전통적인 유교 사대부 관리들로서 전통적 주자학을 공부하여 과거를 통한 관직을 얻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후당과 상반되는 대내외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홍장이 주도하는 양무운동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반이홍장’, ‘반양무파’라는 입장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제당 관료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들이었고 또한 양무운동과 연관된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태후의 지지에 힘입어 국가 예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양무파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고 이러한 입장에서 이홍장과 외교정책, 국방정책,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명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당파가 이홍장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주전론을 주장하는 경향은 청일전쟁을 앞두고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양무파가 열강의 침입 앞에서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자 더 이상의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중단하고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자학과 중화사상이라는 이들의 전통적인 대외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이홍장을 대표로 하는 후당은 주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서태후 역시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주화론을 지지하였습니다.

반면 제당의 구심점은 광서제였습니다. 광서제는 제당 관료들의 대외인식에 공감하였다기보다는 서태후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략적으로 반대 입장의 관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광서제의 가장 큰 정치적 목적은 서태후에 맞서 자신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서제는 비록 서태후에 밀린 권력의 2 인자이긴 했지만 한 나라의 황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당 세력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광서제와 제당파의

처음 이어준 것은 옹동화(翁同龢)였습니다. 옹동화는 광서제의 어릴 적 스승이었으며 광서제가 황제에 오른 이후에도 주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광서제가 자신의 실질적인 황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당에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제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광서제를 이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반대 세력이 결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옹동화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과 생각을 가진 관료들과 제당을 형성하여 서태후와 이홍장이 중심이 된 후당과 대립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당을 하나로 모아주는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들의 원류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1870 년대에서 1880 년대 북경정계에 소장관료가 주된 구성원이 된 ‘청류’라는 정치세력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두기, 1985) 청나라 정부가 1870 년대 들어서 내정과 외교 문제를 해결하며 보여준 굴욕적인 태도는 양무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공격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정치적 배경과 지도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이홍장적인 입장과 대외강경론을 결합하여 나타났는데 이 것이 바로 청류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청류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의 정치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공통되고 확고한 강령과 조직으로 결합된 집단이 아닌, 특정한 경향을 가진 관료집단 및 의견으로 여겨졌지만, 1880 년대

중반 이후 청불전쟁을 전후로 반이홍장적인 입장에서 주전적 강경론을 주장하며 이들은 본격적으로 정책 형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유사한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배경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제당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민두기, 1985) 이들의 유사한 특징인 유교적 도덕규범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 집단보다도 중화주의적인 대외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자학에의 경향, 도덕주의의 강조, 청렴한 생활, 청국의 권위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긍지 등의 공통된 배경은 그들을 원칙적이고 정통적인 보수의 입장에 서게 하였습니다.

1880년대 초반, 당시 청나라 정부는 내적으로 베트남을 둘러싼 벌어진 프랑스와의 갈등에 대해서 주전론과 주화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책형성과정에서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본격적인 정치적 견제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류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류 세력에 맞서 더욱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청불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청류는 약 10년 뒤 조선과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론을 요구합니다. 1892년 말부터 조선에서 전개된 동학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한 이후 일본 또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청나라 정부 내에서는 주전 강경론이 조정 내 의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홍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홍장은 조선에 대한 청군의 파병에 관한 전보를 총리아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외 인식을 드러냈으며 이홍장의 이러한 태도는 청일전쟁 발발 전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제당파는 청일전쟁 이전부터 청군의 병력을 조선에 증파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본이 첫 번째 절교서를 제출한 이후 이홍장이 주도하는 주화론과 연아책에 상반되는 정책으로서 주전론과 연영책을 주장하여 강력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제당파 주전강경론의 특징

청일전쟁 전후 제당의 주전강경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주전론은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전통적 국제질서 관념은 제당파가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 중심의 사대질서였습니다. 이러한 중화사상에 젖은 제당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서 영원한 약소국이라고 인식하며, 광폭한 동쪽의 오랑캐 정도로 과소평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이후 전쟁을 도모할 것이라는 예측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제당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 청나라 중심의 중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홍장의 주화론적인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즉, 제당이 줄곧 일본에 대해 주전 강경론을 펼친 이유는 전통적인 중화 사상적 인식 속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은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으며, 유교적인 도덕과 명분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당파 주전강경론의 두 번째 특징은 청류의 또 다른 특징은 상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청의”라는 이름으로 사대부의 여론을 대표하며 시정이나 고궁의 행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였습니다. 이들은 학문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상소’라는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정권에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서태후와 이홍장이 주된 권력을 독점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할 만한 불만과 좌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 가치관, 도덕적 신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소가 보여 주는 특정한 경향은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비판적인 시론을 전개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유교 국가의 도덕성 고수, 개개인의 이해관계, 중앙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 부정부패의 시정, 양무운동의 확대 과정에서 세력이 강화된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등이었습니다.

제당이 청일전쟁에 미친 영향

제당은 유교의 전통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중화 사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으며, 양무관계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유교적, 도덕적,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며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태후로부터 독립하려는 광서제의 정치적 목적과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당 관료들은 중화적, 유교적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숭배했던 주자학은 예를 중시하는 학문으로 개인 간의 예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예가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방 관계였던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예의 논리가 중국을 지배했고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조선을 도와주고 중화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본을 벌하기 위해서 출병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청나라 조정은 이홍장에게 일본과의 전쟁을 지시하고 중화 중심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인 서태후는 왜 청일전쟁을 승인한 것일까요? 서태후의 대외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못했지만, 대외 정책 측면에서 이홍장과 대부분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이홍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태후는 주화론의 입장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홍장의 전쟁을 승인한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제당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을 딱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당의 모든 대외인식과 정책적 논리의 출발은 당시 주류 학문이자 절대적 진리로 사회에서 여겨지던 주자학과 중화 사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적 질서의 관성이 강하게 남아있던 중국 사회에서, 예의 명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속방을 도와주고 오랑캐를 제압하자는 주장을 반대할 명분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당의 모든 주장은 공식적인 상소문과 서신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도 수많은 상소들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특정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서태후의 권력 유지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서제의 정치적 목적이 서태후를 견제하는 것이었던 것이듯, 서태후의 가장 큰 목적 역시 자신의 국내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서태후도 이에 대해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서태후가 광서제를 결국 독살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태후로서는 광서제의 정치적 기반인 제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이들의 불만이 결집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전쟁은 자신의 편의 핵심인 이홍장을 투입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직접 전쟁을 지휘한 이홍장과 자신의 위치가 더욱 올라가고 그 정당성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광서제의 기반이 되는 제당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서태후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세력과 상대의 세력 간의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서태후는 이홍장의 주화론과 기본적인 대외인식을 같이 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권력과 정치 행위의 동기는 자신의 국내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강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태후는 어느 정도 전통적,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이홍장을 이용하여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청일전쟁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청나라의 청일전쟁 참전의 결정은, 광서제의 친정 이후 점점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키워나가던 제당파의 정책적 제안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이들의 주장은 광서제라는 탄탄한 권력 기반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주자학의 전통, 예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논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제당의 원류가 되는 청류의 활동이 19 세기 후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서양 열강으로부터 도전 받았던 시점에 집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의 안전에 대한 위기 의식이

패배할 수록 제당파의 대외 인식은 중국적인 가치관 또는 중화관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가장 군사적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 1884년 청불전쟁과 1894년 청일전쟁 시기에 제당파는 꾸준히 주전 강경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제당파가 주장한 주전론이 받아들여져 시작된 청불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들의 현실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더욱 무시하고 약소하게 보았던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은 청나라 정부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당파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가치관에 기반한 서양 열강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은 청일전쟁에서의 계속되는 주전 강경론으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당의 정책적 제안은 당시 정치적으로는 상대편이었지만 최고 권력자였던 서태후의 권력 기반 유지라는 전략과 부합하여 청일전쟁 참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북아 질서를 뒤바꾼 시모노세키 조약, 그 후

막상 청나라와 일본 두 국가의 무력충돌의 뚜껑이 열리자,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청나라 정권이 나름대로 양무운동을 통해서 군사력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전, 해전에서 모두 일본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에 몰린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으로 맺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방문하였던 일청강화기념관에서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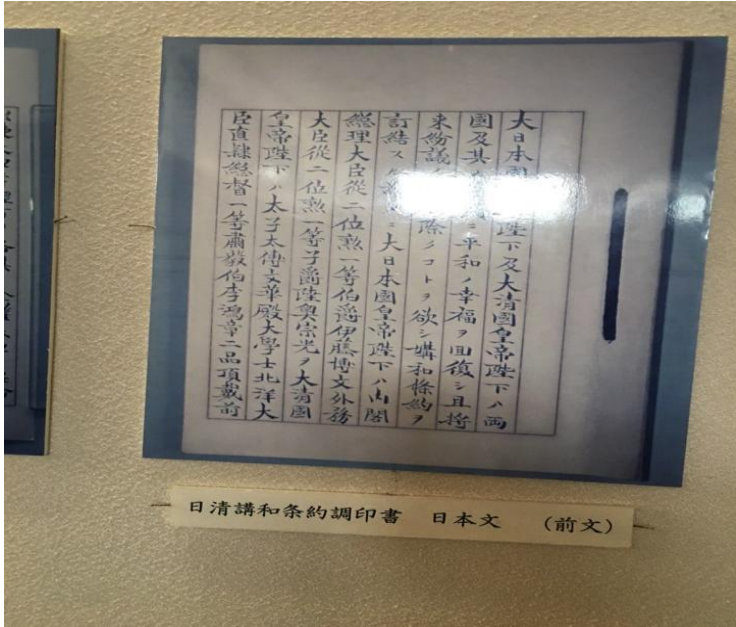


사진 4. 일청강화조약 일본어판의 전문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단순한 두 국가의 충돌을 넘어서서 힘의 균형의 변화, 국가 간의 이익의 재조정, 지역질서의 변동 등의 결과를 낳는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일전쟁 또한 그 역사적 의미가 실로 막대합니다. 청일전쟁만큼 한 번의 전쟁으로 국제 질서를 급격히 변동시켰던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3 국이 모두 관여하였고

한반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의 결과를 명백히 드러나게 해준 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은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강병론적 근대화 경쟁의 1 차적 승리의 판정이 나타난 전쟁이었으며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비로소 서양 국가들에게 군사적 강국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제국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모노세키조약의 결과로 영일동맹의 초석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중국의 무력함의 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잠재적이지만 세계 강국으로 인식되던 중국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양 열강들의 중국 대륙에 대한 직접적 침탈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정, 1991)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세력균형, 구조적인 문제, 국제 질서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으로부터 약 120 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 년의 수모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굴기를 준비하는 중국과 미국의 힘을 빌려 과거의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하는 일본,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반도에서는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 점점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정치적 배경으로 거친 말들을 뱉어내고 있고, 어느 순간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을 나오자마자 보인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이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순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사진 5. 일청강화기념관에서 바라 본 바다

전쟁과 평화의 결과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청일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지역의 국가들이 전쟁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답사보고서는 청나라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 바탕이 되는 대외인식을 통해서 청일전쟁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이렇게 한 국가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을 자세하고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민두기. 1985. “戊戌變法運動의 背景에 대하여.”
- 이승만. 2015. 《쉽게 풀어 쓴 청일전기》, 김용삼, 김효선, 류석춘 역, 북앤피플.
- 김기정. 1991. “세계체제의 구조변동과 19세기 후반기의 동양외교사”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 척기장 (戚其章). 1989. 《갑오전쟁사 (甲午戰爭史) 6 권》
- 고정룡 (顧廷龍), 대일 (戴逸), 《이홍장전집 (李鴻章全集) 24, 25, 26 권》, 2008. 안휘교육출판사 (安徽教育出版社)
- 량치차오. 2013. 《리홍장 평전 : 중국 근대 대사상가 량치차오, 동시대 실권자 리홍장을 말하다 (원제: 李鴻章 評傳)》, 박희성, 문세나 역, 프리스마.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개화론’의 제국주의적 변질과 조선 _규슈국립박물관

주연정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마지막 일정인 규슈국립박물관이 연말연시인 관계로 휴관이었기 때문에 이번 답사에서 규슈국립박물관은 들리지 못했습니다. 고대 시기부터 에도시대까지 일본의 형성과 역사를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살펴보고 있는 전시들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문화의 형성을 아시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전시의 주요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근대 일본을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시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역사를 전체 속에서 고찰해보는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상호관계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1. 규슈국립박물관의 전경과 내부 (규슈국립박물관 리플렛)

동아시아는 현재까지도 감정과 기억에서 비롯되는 역사문제로 국가 간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원은 19 세기 말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크게 전환되던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세계는 근대가 형성되면서 해체되는데, 동아시아 세계의 구성원이었던 일본이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본만이 제국화에 성공한 상황에서, 탈아론을 주창하고 동아시아 이웃국가들을 침략하며, 특히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일본에게 아시아는 지배의 대상, 아시아에게 일본은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유산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사적 경험에 의한 감정이라는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는 19 세기 말의 경험이 정체성화되어 감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근대, 중국의 근대, 일본의 근대가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가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여러 행동들이 질서변환을 겪고 있었던 동아시아 전체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일국주의적으로 특정 국가의 상황을 선별하여 인식해온 데에서 침략과 피해의 이분법적 구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반화하여 기억을 집단화하는 것은 보편적 이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고립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에 오래 뿌리박고 있는 과거에 의한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성 2012, 335)

아시아의 근대를 되돌아보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일국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단위 중심으로 국가들이 어떻게 역사적 전환의 시기를 거쳤는가를 관계적으로 고찰해보자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가 갈등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의 기원을 19 세기 말에서 찾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세계의 근대이행을 국가 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가 근대이행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일본은 탈아를 결심하게 되었고, 어떠한 배경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구 문명의 흐름에 연착륙하지 못했는가를 관계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 세기 말 문명전환의 시기에 당시의 질서의 전환과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후쿠자와의 문명개화론이 동아시아 연대 구상에서 탈아론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재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제국주의로 가는 과정을 후쿠자와가 구상한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화의 시도와 이것이 실패한 데에서 비롯된 탈아론을 한 번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후쿠자와는 조선의 개명(開明)을 통해 동아시아가 연대하여 서구세력에 대항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기대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좌절되는데, 이것이 탈아론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조선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1 차적으로 청, 일, 서양의 세력경쟁에서 비롯되는 질서의 전이를 수용해야하는 문제, 2 차적으로 약소국으로 강대국과의 규율관계를

재조정해야하는 복합적 딜레마가 있었는데,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이를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19 세기 말 문명의 전환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천하질서는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서구에 의해 전파된 새로운 국제정치 운용기제들에 의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만국공법과 조약체제라는 새로운 규범과 주권, 세력균형, 부국강병경쟁 등의 기존 동아시아적 원리와 상이한 개념이 새로운 문명의 기준으로 동아시아에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동아시아 문명의 전환은 단순하게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방식의 변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가 공유해온 기본적인 사고방식, 개념, 사회의 운영체계, 국제정치의 작동원리 등 인간 삶의 양식부터 국가 간 관계까지 총체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 이것이 서구 제국주의라는 힘의 국제정치 방식을 통해 들어오면서, 국가들은 변칙과 위기의 과정을 거치는 자연스러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문명의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은 주권의 개념과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천하질서는 천하예의지방(天下禮儀之邦)을 문명표준으로, 자소사대(字小事大)를 기본 행동 원칙으로 삼는 운용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근대 유럽의 국제질서는 주권국가라는 문명표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천하질서에서처럼 국가 간 위계적 질서에 따른 기대역할을 통해 국제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지닌 독립된 국가가 부국강병으로 자강군세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준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영선 2012, 19-24)

서구의 문명표준은 아편전쟁 이후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강대국의 제국경쟁을 뒷받침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동아시아의 문명에서 서구의 문명으로 강압적인 방식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하에서 근대국민국가로, 예에서 부국강병으로, 자소사대에서 자강군세로 주인공, 무대 그리고 연기의 원칙이 변화한 것입니다. 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보다 천하라는 전체로서의 질서 개념 하에서 국가 간 관계는 부국강병의 수평적 경쟁이 아니라 예에 의한 위계적 규율방식이 기초가 되었고, 자강군세가 아니라 자소사대의 행동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에서 국가들은 서구 문명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영선 2012, 24-25)

새로운 문명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수용과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구 문명으로의 전환이 빨랐던 일본은 제국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청과 조선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수용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결과 각각 반식민지, 식민지의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본은 국가의 전면적 개조를 통해 완전한 서구문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나 중국의 정신을 본질적인 원리로 해야한다는 중체서용을 기반으로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과의 관계에서 속국관계를 강요함으로써 근대적 제국으로의 변용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생존하고자 했지만 결국 청일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조선은 서양, 일본, 중국의 압력에 의한 삼중고의 상황에서 국가 관계의 전환과 개혁을 모색하였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본과 조선, 청이 서구 문명에 대응했던 방식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일본은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대처했고, 조선과 청은 그러지 못했다는 사후적인 판단은 적절한 것일까요. 우리는 질서의 거대한 전환의 시기 각 국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했는지 그 고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었던 논리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 논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각 국가의 논리는 어떻게 현실화되거나 굴절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구의 세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명론에 기반하는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문명화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앞날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의 개명을 기대하는 아시아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마저 실패하여 조선의 개혁이 여의치 않자 아시아의 문명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탈아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타락한 제국주의적 근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는 1860-1880 년대 초반 일본이 내세웠던 문명론에 기반한 아시아 연대의식이 아시아 전체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2. 아시아와의 교류 속에서 일본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구성된 문화교류전시실의 모습입니다. (규슈국립박물관 리플렛)

후쿠자와와 조선의 만남: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화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미개에서 서구문명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방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아시아의 운명도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쿠자와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초기 아시아의 연대론은 동아시아 세계의 서구문명화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이 서구문명화에 가장 앞선 국가이므로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쿠자와가 일본을 맹주로 아시아 민족이 연대하여 서구 열강을 아시아에서 물리쳐 부흥시키자는 동아시아 연대의 홍아론을 주창한 것은 1880년, 그리고 탈아론을 발표하게 되는 시기는 1885년입니다. 후쿠자와가 이 5년 사이 전혀 상반되는 담론을 제시한 데에는 조선과의 만남과 조선의 정세변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과 근대 유럽 국제질서의 방식으로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개항과 함께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는 문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선도 개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자와와는 조선의 사절단과 특히 게이오 대학에 입학한 유길준, 윤치호를 통해 전통과 근대의 변곡점에 서있는 조선인, 조선을 보고 20 여 년 전 자신과 일본을 느꼈다고 합니다. 허리에 총, 칼을 찬 채로 발전된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었던 자신, 페리 개항 이후 양이에 대한 일본 내의 갈등적이고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를 떠올리며 현재 조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후쿠자와의 초기 조선에 대한 인식은 '심정'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月脚達彦 2015, 8-12)

후쿠자와와는 20-30 년 전의 일본이 처음 개항할 때 혹독하게 앓았던 서양 문명에 대한 흥역 치례를 당시의 조선도 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흥역을 한 번 치르고 나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 것처럼 '서양문명병'을 한 번만 겪고 나 면 조선도 혼란에서 벗어나 개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로서 조선의 문명화와 독립을 지원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후쿠자와가 일본을 맹주로 위치시킨 것은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문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은 문명화에 늦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서양문명을 섭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맹주론은 서양문명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月脚達彦 2015, 13-21)

즉, 조선의 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라도 조선의 개명을 이루어내고 나아가 아시아가 문명화되어 서구에 대항하고 아시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후쿠자와의 초기 아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개명론과 아시아 맹주론은 조선인과의 만남과 게이오대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수학시키는 시기에 후쿠자와가 ‘시사소언(時事小言)’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라는 공간을 정치적 연대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후쿠자와가 조선 침략주의자였는지, 문명화의 지원자였는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후쿠자와의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화를 통한 아시아 연대의식을 바로 침략론으로 연결하는 것도 이 당시 상황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개명과 아시아 맹주론이 조선과의 만남을 계기로 동정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을 때,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래 1880년대 초중반까지 조선을 기존 중화문명과 단절시키려 하고 서구문명화로 이끌고자 했던 후쿠자와의 구상에는 사사로운 일국적 침략의도보다는 아시아가 연대하여 서양에 대항하자는 지역인식이 우선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쿠자와의 주변국에 대한 문명론은 문명국가로서의 자의식과 미개했던 과거의 일본으로 볼 수 있는

조선이라는 인식적인 구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도가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포용력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후쿠자와가 조선의 정세변화에 따라 이상의 인식적인 구도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문명화론의 전개와 실패: 강화도조약~갑신정변

조선이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면서 개항하게 되었지만, 기존 질서와의 단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양세력을 금수로 여기며 척화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에 후쿠자와는 '일본이 척양론을 포기한 것은 외국이 이적, 금수가 아니라 문명개화를 같이 할 좋은 친구이고, 외국과 교류하여 함께 개명(開明)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보국진충(報國盡忠)의 대의임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이라며 '조선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문명화로 유도할 필요하다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시로 2013, 63)

1881년 7월 29일에 간행된 시사소언(時事小言)에서 '아시아 동방의 맹주론'을 발표했는데, 강제로라도 조선과 청국을 문명화시킴으로써 일본 중심으로 조선과 청을 연맹하여 서양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여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 맹주론의 내용은 1882년

‘시사신보(時事新報)’에 발표된 논설 ‘조선과의 교제를 논한다’에서도 반복됩니다. (다카시로 2013, 53)

이에 따라 후쿠자와는 조선에서 척사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조선 개화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동인, 어윤중 등과 교류했으며, 1882년에는 김옥균과 서광범이 방일하였습니다. 김옥균은 임오군란 후에도 박영효 일행과 다시 일본을 방문하는데, 이 때 김옥균은 후쿠자와와 박영효의 만남도 주선했다고 합니다. 후쿠자와는 조선개화파와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조선 개화파도 후쿠자와와의 교류 속에서 근대 일본을 모방하여 조선 개혁의 계획을 세워나갔던 것이지요. (다카시로 2013, 63-64)

하지만 조선에서는 일본과 서양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거세어지는 가운데 임오군란 발발 전인 1882년 3월 31일 원산진에서 조선인들의 폭력에 의해 일본인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군함을 파견하여 무력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쿠자와는 무력에 의해 조선을 겁주는 것보다 개항을 통해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은 현재 미개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개의 단계에서 나오는 아둔함이기 때문에 조선이 야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본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개의 인민이 차차 개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경과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이
수백의 거류인민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통쾌해했음은 분명하다.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며, 그 흥폭함으로 미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그를 조선 인민의 죄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멈출 수 없다. (다카시로 2013, 71-72)

임오군란에 대해서도 조선 내부에서 척화양이세력이
득세하여 조선이 개화를 통해 문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정부는 반적의 손에 들어갔다. 임오군란이 만약 정권을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정부에서 개진파를 적으로 세운 것은
분명하다. 이미 개진주의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조선국에 있어서 나라의 개명을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카시로 2013, 83-84)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1876 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부터 임오군란이 발발했던 1882 년의 약 6 년 동안 조선이
문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안변사건(원산진 사건)과 같이 당시 나는 급속히 효력이 있는 대책(무력보다 개항)을 세울 필요성을 논하고, 그것을 등한시켰을 때의 위험성을 논했는데, 그 대책이 채용되기 전에 갑자기 7 월 경성사변(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때도 나는 과거의 내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조선정략을 논했다. (다카시로 2013, 93)

임오군란 발발 이후 후쿠자와의 조선 문명화는 3 가지 방향에서 추진됩니다. 첫번째는 무력에 의한 직접간섭의 방법입니다. 이는 임오군란으로 조선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선의 문명개화는 아직 가능하다고 인식하나 문(文)을 가지고 설득하여 효과가 없으면 무(武)를 가지고 협박할 필요도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력을 바탕으로 국무감독관을 조선에 상주시켜 내정간섭을 하게 합니다. 동시에 임오군란으로 척화파와 청이 득세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선 개화파에 의한 국정개혁이 활발해지자 조선 사인(士人)에게 양학을 가르치는 문(文)에 의한 문명화 역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본을 차관 형식으로 조선에 지원하여 교통, 학교, 광산, 제조업, 육해군 편제 등 근대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에 지원한 경제차관의 출처는 임오군란 후

제물포 조약의 결과로 받은 50 만엔의 배상금 중 피해보상을 하고 남은 40 만엔이었습니다. (다카시로 2013, 106-120)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후쿠자와는 조선 개명시키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김옥균, 서재필 등 조선의 개화세력에 후쿠자와는 일본 자금까지 가명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조선 개화파가 개혁을 구상할 때 후쿠자와와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후쿠자와도 조선 개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청의 진압으로 실패하고, 주동자가 살해되거나 망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후쿠자와는 조선의 개혁을 도모한 일본 개혁의 괴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후쿠자와는 탈아론을 제시하며 아시아 연대의 사상을 철화하였습니다. 1885 년 3 월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실린 탈아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月脚達彦 2015, 29)

첫 번째는 서양 문명을 취해야 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동아시아 전체도 문명화를 통해 서양의 침략에 대응해야 하는데, 문명화를 이룬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과 청과의 관계는 일본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아시아를 침략한 것은 서양문명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자신도 서양문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양 문명은 모두가 앓는 홍역과 같다. 때문에 아시아 국가도 서양문명병에 걸려봐야 한다. (月脚達彦 2015, 22-23)

조선은 나라, 정부가 진보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 전체, 조야의 구분없이 만사 서양의 문명을 취해야 한다. 미일화친조약으로 서양의 기세가 들어왔는데, 당시 일본의 관습은 서양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국가와 정부는 다른 것이라 생각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정부(도쿠가와 막부)를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메이지 정부)를 세워 서양문명을 전격채용하였다. 이는 일본에서만 이루어졌다. 탈아(근대서구문명화)는 아시아의 전 주에서 일본만 이루어졌다. (月脚達彦 2015, 23-24)

조선과 지나에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인물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 정부를 쓰러뜨리고 서양 문명을 채용하면 독립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 이대로라면 서양의 문명국에 의해 분할될 것이다.... 이웃을 깨우쳐도 지금의 지나와 조선은 우리 일본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일본은 지나, 조선과 같은 미개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필요한 것은 지나, 조선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융합으로써가 아니라 서양 국가가 지나, 조선에 닿도록 양국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심정에서 양국과의 교제를 사절해야 한다. (月脚達彦 2015, 25-27)

후쿠자와가 탈아론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한 바는 이제 중국을 분할하고 조선을 식민지화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서구문명에 의해 변해가고 있는데, 주변국가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주변국의 문명화를 기다리는 것은 일본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탈아론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상황에서 후쿠자와의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음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총체적으로 전환되던 이 시기에 동아시아 각 국가가 부여받은 서구 근대질서로의 진입은 각 국가들이 보였던 행위, 담론의 표면적이고 표현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소에서 어떠한 상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쿠자와의 조선 문명화론은 근대 국제질서에 마주하는 과정에서 후쿠자와가 모색했던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설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 동아시아 천하질서에서 각 국이 처했던 위치와 상황이 상이하다고 했을 때,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주변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적용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의 입장에서 서구문명을

맞이하는 상황 구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후쿠자와의 고민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복합적 딜레마와 조선문명화론의 한계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서양의 문명을 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아직 서양문명을 취하지 못한 미개에서 서구문명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또한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하여 모든 국가가 현재 처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노력하여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쿠자와 2012)

하지만 조선이 서구문명의 침투와 강요 속에서도 서구문명화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원론적 문명관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 일본보다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의 결속의 정도이고, 두 번째는 조선의 약소국으로서의 위치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조선의 딜레마에 작용했다는 생각입니다



사진 3. 규슈국립박물관 대신 커넬시티에서 발표와 토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천하질서에서 동아시아가 국제정치적으로 ‘이익’을 사유하는 체계는 서구와 달랐습니다. 서구의 국제정치가 권력구조와 이익구조의 긴장관계를 물질적인 능력이 결정했다면, 동아시아는 관념적인 지위가 권력구조와 이익구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화이(華夷) 구분에 기초한 중화사상의 관념적인 지위체계를 자국 중심으로 변용하여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중화사상에 의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타(自他)의식을 자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용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일본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중심의 화이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화문명을 다른 국가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중화문명에 대한 숭배와 중원왕조에 대한 숭배를 동일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중화사상이 존재하였지만, 중국의 현실적 위압때문에 중원왕조에 대해서 순응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문명관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관념적 지위 문제를 기반으로 이익이 설정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 관념은 중화 문명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관념적 지위를 주관적으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의 경우 중원왕조의 성격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중원왕조에는 순응하고 주변국들과 소중화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관념적 경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천하질서 안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화문명과의 결속 정도가 지리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이 천하질서 하에서 중국 및 주변국에게 임진왜란을 제외하고 큰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서구문명과 만났을 때 관념과 태도의 전환이 중국이나 조선보다는 유리했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조선이 약소국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새로운 질서에 직면하여 조선은 1 차적으로 서구문명의 질서와 동아시아문명의 질서의 경쟁 상황에 대한 적응과 2 차적으로 결국 하위단위로서 상위단위와 어떻게 결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걸려있었습니다. 조선에게 질서의 전환은 여전이 제국적 성격의 질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국질서의 성격과 종속의 논리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청과 경쟁하는 1 차원적 세력경쟁만 해결하면 되는 과제만 부여받았다면, 조선은 강대국 간 세력경쟁과 그 경쟁 과정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결속을 두고 벌이는 경쟁도 견뎌야 했습니다. 후쿠자와의 서구문명달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정당성에 대한 일원론 적 방향이 청도 조선에 힘의 국제정치로 결속하고자 하고, 일본과 서양세력도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서구문명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적 한중일 관계를 위하여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의 문명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화와 연대에 대한 구상과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에 대한 연대 의식이 강했는데, 후쿠자와는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이러한 아시아연대에 대해서 포기하고 탈아론으로 입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로 나아갑니다. 조선을 식민지화했을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 세기 말-1945 년까지의 이러한 사건들에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 기억과 감정의 문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침략과 방어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만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입장만 강조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답사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를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근대이행기를 마주했던 한중일, 특히 조선과 일본의 대응을 관계적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위와 주변국의 피해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동아시아 각각의 국가들이 가져왔던 민족주의적 역사, 기억을 근본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각 국가의 규범적 역사성을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후쿠자와가 생각했던 문명론과 아시아 연대에 대한 초기의 동기로 돌아가서 일본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이에 한국의 논리는 어떠한가를 비판적으로 재고찰하는 것을 이번 보고서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동아시아가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19 세기 말 조선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서구문명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딪혔던 딜레마는 일본이 겪었던 수준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쿠자와는 조선의 문명화가 요원해졌기 때문에 일본은 탈아로 간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는 사상의 지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힘의 논리로 동서양이 정치적으로 결합되는 근대 이행기의 위협인식과 아시아 주변국과 문명에 대한 간주관적 이해가 잘 결합되었다면, 서구세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아시아연대의 구상이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참고문헌

- 다카시로 코이치. 2013. 《후쿠자와 유키치의 조선정략론 연구: 「時事新報」 조선관련 평론(1882~1900)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전재성. 2012. “동아시아의 복합네트워크 규범론과 한국 전략의 규범적 기초” 하영선, 김상배 편.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서울: 한울.
- 하영선. 2012. “동아시아질서 개념의 역사적 변환: 천하에서 복합까지” 하영선, 손열 엮음.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서울: 창비.
- 후쿠자와 유키치. 2012. 《문명론》. 정명환 역. 서울: 기파랑.

月脚達彦. 2015. 《福沢諭吉の朝鮮：日朝清関係のなかの「脱
亜」》. 東京：講談社.

부록

사료로 본 나가사키 원자폭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언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노가연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후쿠오카 공항에 내린 사랑방 9기의 첫 답사 목적지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었습니다. 나가사키 시내에서 가깝지만 고즈넉한 마을,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자리한 원폭자료관은 세련된 현대건축물을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영어·한국어·중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관람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재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연도가 벽에 새겨진 둥근 홀의 벽을 따라 내려가면 피폭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한 물건과 기록들로 채워진 전시실이 1945년 그날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을 나서면 나타나는 두번째 공간에서는, 일본제국의 침략사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태평양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경위, 미



사진 1.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입구

국의 원자폭탄 개발부터 히로시마·나가사키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인 원자폭탄 개발의 역사 등 많은 정보가 모여 있었습니다.

‘Nagasakipeace’라는 원폭자료관의 홈페이지

주소부터 주변에 조성된 평화공원까지, 지금의 일본과 나가사키는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내용과 범위가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단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에서 복원한 1945년 8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마지막까지 버티던 추축국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게 했고, 연합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승리를, 한반도에는 해방을 가져



사진 2. 평화공원에서 사랑방 일동

다주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설입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원자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전략의 의미, 그리고 인류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수백 년간 이어진 전쟁의 끝을 장식한 극단적 파괴력의 무기는 도덕성에 대한 논란마저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꼭 사용했어야 했는가?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번째 원자폭탄은 정말 필요했는가? 이 참혹한 무기가 ‘더 많은 희생’을 막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타당한가?

곧,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은 정말로 전쟁을 끝내는데 필수적이었는가’하는 것이 중심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2. 팻맨(Fat Man)의 복원 모형을 관찰하는 사랑방 학생들

사용으로 미국이 의도한 것이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는 것’이었다면, 수단을 통해 그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당시 일본의 정부 지도자들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캠퍼스에 자리한 미국의 비정부·비영리 기관인 국가안보문서보관소 (National Security Archive)의 웹사이트는 보관된 문서들을 주제별로 추려 개괄과 관련 문서들을 정리한 브리핑북(Briefing Book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The Atomic Bomb and the End of World War II* (Burr 2017)는 원자폭탄과 종전에 관련된 배경, 논란, 기존 연

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역사학계, 정치학계, 정치계, 군사계, 사회운동 및 일반 시민들 간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쟁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미·소를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이 급박한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원자폭탄의

구자들의 쟁점과 함께 다양한 출처의 중요 1차 자료들을 선별 수록하여, “핵무기의 사용이 정당했는지에 관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본 브리핑북은 일본 정부와 관계자의 내부분서까지도 일부 영어로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어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4.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관람 후 관련 퀴즈를 풀고 있는 사랑방 9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100여 건의 문서 중, 히로시마 피폭 후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실행되기까지의 3일(8월 6-9일)과 그 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되기까지의 6일(8월 9-15일) 사이, 일본정부 내부의 의중을 알 수 있는 특별히 중요한 문서 4편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목록>

- [1] Document 67A (1945. 8. 7-8.): 일본 외무성 편 <종전사록> 중, 히로시마 피폭 직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에 관한 발췌문 모음
- [2] Document 75 (1945. 8. 9-10.): 나가사키 피폭 후 히로히토 천황의 첫번째 ‘성스러운 결단’에 대한 해군 군무국장 호시나 겐시로와의 비망록
- [3] Document 86 (1945. 8. 13.): 일본 외무성 편 <종전사록> 중, 항복에 관해 일본 내각과 군부 내의 계속되는 논쟁
- [4] Document 89 (1945. 8. 14.): 정보국 총재 시모무라 히로시의 <종전기> 중, 천황의 두번째 ‘성스러운 결단’에 관하여

[1] Document 67A (1945. 8. 7-8.)

일본 외무성 편 <종전사록> 중, 히로시마 피폭 직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에 관한 발췌문 모음

Togo's Meetings with the Cabinet and the Emperor, August 7-8, 1945

Source: Gaimusho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 Shusen Shiroku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End of the War), annotations by Jun Eto, volume 4, pp.57-60

[Excerpts] Translations by Toshihiro Higuchi

On the morning of August 7th, the American radio conveyed President Truman's statement, saying that "The atomic bomb dropped on Hiroshima ... is a weapon that brought a revolutionary change to warfare. Unless Japan is willing to surrender, we will drop bombs in other places." Upon hearing this broadcast,

Foreign Minister [Shigenori] Togo felt an urgent need to make a protest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its atomic use, if it was the case. Communicating with the Army for the confirmation of the event, the Army replied that, contrary to the American argument, the bomb seemed to be not an atomic bomb, but an extremely powerful conventional bomb. The foreign minister then asked the Army for an urgent investigation.

On the 7th concerned ministers met to discuss the issue. Togo made a detailed report about the American broadcast on the atomic bomb. The Army took a position that they needed to wait for the result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before taking any steps, an attitude which tended to downplay the bomb's effects. At the meeting, the foreign minister suggested that the advent of the atomic bomb offered a reason for the military to terminate the war and, therefore, they should consider the end of the war on the basis of the Potsdam Declaration. At that time, however, the foreign minister's proposal did not become an agenda item for further discussion.

The next morning, Togo, well aware of the continuous publicity blitz of the Anglo-American broadcast about the atomic bomb, was admitted to the Emperor's presence at the Court after consulting with Prime Minister [Kantaro] Suzuki. Informing the Emperor of the broadcast, the foreign minister reported that there was no option but to accept the Potsdam Declaration. Hearing this, His Majesty stated that the advent of the new weapon like the atomic bomb made it impossible to continue the persecution of war and steps should be taken to the end the war without delay. His Majesty ordered the foreign minister to relay his remark to the prime minister.

Telling Lord [Koichi] Kido [the Lord Keeper of the Privy Seal] and Prime Minister Suzuki about the emperor's statement, Togo asked the prime minister to convene the Meeting of the Principals of the Supreme Council for the Direction of War (Kosei'in Kaigi) as soon as possible. Accordingly, the prime minister arranged for a meeting to take place the next day, the 9th. Then, on the morning of 9th, the Soviet Union entered the war, and in the middle of the hastily convened Meeting of Principals, the second atomic bomb was dropped on Nagasaki. ...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on August 7, the night after the Hiroshima bombing, Togo and Army Minister [Korechika] Anami had a

long conversation alone at the Army Minister's residence. At this occasion, the army minister was said to express his agreement, in a candid manner, with Togo's opinion that the defeat would be only a matter of time. Their conversation continued from around 6:30pm to near 9.

[Excerpts from post-war accounts]

Seiji Hasegawa, "Hokai no zenya" (The night before the collapse), in *Fujin Koron*, August 1947.

...On August 6, an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With Hiroshima thoroughly destroyed, a special telephone line at my office (Domei News Agency) went out of order. Everyone, including the head of the [agency's Hiroshima] branch, had died, so I could hardly grasp what happened at all. When I asked the Communication Bureau, I was told that one or two airplanes flying over Hiroshima dropped only one or two bombs, and that they crushed Hiroshima and tossed the [Domei] branch in to a mess, too. Still, I couldn't understan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at all. Then, shortly after 9 in the evening, I returned to the hotel (I was then staying at the First Hotel) and went to bed. On the 7th, around 1:30am, the phone rang in my room. [By then, Domei's receiver station had been relocated to Kawagoe so that it could receive Anglo-American broadcasts]. The phone call told me that President Truman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attacked Hiroshima with an atomic bomb, and that British Prime Minister Atlee said the same thing. But since I didn't know how terrible the atomic bomb was, I felt I was shaken out of bed for a trifling matter. Anyway, I went back to the agency, and relayed the report to Foreign Minister Togo and Chief of Cabinet Secretariat [Hisatsune] Sakomizu. But neither of them knew anything about the atomic bomb. The military knew it, but believed the fact that it was an atomic bomb should not reach the public; it made deceptive propaganda reports that it was a "new bomb," and [claimed] that people did not need to worry if they covered themselves with white cloth.

Transcript of Foreign Minister Togo's Testimony, "Shusen ni saishite" (At the time of the end of the war), September 1945.

On August 6, the United States attacked the city of Hiroshima with an atomic

bomb, and the Anglo American camp began a massive propaganda campaign about the atomic bomb, saying that the atomic bomb not only changed the situation of the war completely, but also brought a revolutionary change to the society. It also stated that if Japan did not accept the three-power joint declaration [the Potsdam Declaration], it would continue to use atomic bombs until Japan was annihilated. On the afternoon of the 7th, cabinet ministers had a consultation about the atomic attack. The army appeared to be trying to discount its effects as much as possible.

The next day, on the 8th, I was admitted to the [Imperial] presence in the underground room of the Court and reported to the Emperor about the enemy's announcement about the atomic bomb and other related matters in detail. His Majesty observed that, now with this kind of weapon in use, it had become even more impossible to continue the war; we should no longer miss an opportunity to end it with an excuse to wait for a favorable term [of the surrender]. We would not completely discard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conditions, bu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ut an end to the wa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I met the Lord Keeper of the Privy Seal [Koichi Kido] and the prime minister, conveyed His Majesty's will, and decided to hold a session of the Supreme Council for the Direction of War next day, on the 9th.

[2] Document 75 (1945. 8. 9-10.)

나가사키 피폭 후 히로히토 천황의 첫번째 '성스러운 결단'에 대한
해군 군무국장 호시나 젠시로외의 비망록

Zenshiro Hoshina, *Daitoa Senso Hishi: Hoshina Zenshiro Kaiso-roku* [Secret History of the Greater East Asia War: Memoir of Zenshiro Hoshina] (Tokyo, Japan: Hara-Shobo, 1975), pp.139-149.

Section 5: The Emperor made *go-seidan* [= the sacred decision] - the decision to terminate the war

[H]ere I will report the conversation that actually took place during the council, the Supreme War Council, held in an air-raided shelter at the Imperial Palace on the late night of the same day. (Note from the Hoshina memorandum: [the council started] at 11:30 P.M. on August 9, 1945 ...)

Those present at the council in the Imperial presence were:

Prime Minister Kantaro Suzuki (navy admiral)

Minister of Navy Mitsumasa Yonai (navy admiral)

Minister of Army Korechika Anami (army general)

Foreign Minister Shigenori Togo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Yoshijiro Umezu (army general)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Soemu Toyoda (navy admiral)

President of the Privy Council Kiichiro Hiranuma Chief Cabinet Secretary
Hisatsime Sakomizu

Chief of Army Military Affairs Bureau Masao Yoshizumi (army lieutenant
general)

Chief of Navy Military Affairs Bureau Zenshiro Hoshina (navy vice-admiral)

Chief of Cabinet General Planning Bureau Sumihisa Ikeda (army lieutenant
general)

Chief Aide-de-Camp to the Emperor Shigeru Hasunuma (army general)

The council in the Imperial presence [proceeded as follows]:

[The final text approved by the council w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ady to accept the terms enumerated in the tripartite joint declaration which was issued on the 26th of last month,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said declaration does not comprise any demand which prejudices the prerogatives of His Majesty as a sovereign ruler.”

(Note: The original proposal by the Foreign Minister read as follows: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ady to accept the terms enumerated in the tripartite joint declaration which was issued on the 26th of last month,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said declaration does not comprise any demand which

prejudices the status of the Emperor under national laws.”)

Prime Minister Suzuki presided over the meeting (by the command of His Majesty). President of the Privy Council Hiranuma was summoned to the meeting by the command of His Majesty. Chief Cabinet Secretary Sakomizu read aloud the text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e Prime Minister read aloud the draft meeting agenda and then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proposed agenda.

[Prime Minister Suzuki:]

“The following conditions discussed by the Supreme War Council this morning were referred to the Cabinet Meeting [later this afternoon] without solving the final differences in opinion:

- (1) The terms will not include any demand regarding the Imperial House.
- (2)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abroad will voluntarily withdraw and be demobilized.
- (3) The issue of war criminals will be dealt with by the Japanese government.
- (4) There will be no occupation of the Japanese territory to secure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said Declaration].

But the Cabinet Meeting could not reach a conclusion, either. [Therefore] six members [of the council] agreed that the agenda of the day would be the draft proposal by the Foreign Minister. (Note: The six members of the Supreme War Council were: Prime Minister Suzuki, Foreign Minister Togo, Navy Minister Yonai, Army Minister Anami,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Umezu,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Toyoda) Three members had argued for the proposal developed during the Supreme War Council [, which included all four conditions], (Note: Army Minister Anami,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Umezu,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Toyoda). [But] there was a minority opinion that, though the first condition is indispensable, we should limit the number of conditions to the minimum, therefore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greed to adopt the Foreign Minister’s proposal as the basis of discussion.”

Foreign Minister Togo explained the purpose of his proposal:

“Although the Council had earlier decided that we could not accept the

Declaration, the Cabinet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re would be no choice but for us to accept it in the current situation. We have to limit our demand to only those conditions that we absolutely cannot accept.

“The military situation is now more favorable to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given the current state of the enemy forces and because of Soviet participation in the war, so it is difficult for us to demand that they change the terms of the ultimatum any further. From their standpoint, it seems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through negotiations. Knowing that the Soviet Union decided to enter the war, ignoring the conditions that we had proposed to them, it is reasonable not to add too many conditions [to our acceptance of the declaration],

“More precisely, regarding the voluntary withdrawal of our military forces abroad, there can be an opportunity for us to raise the issue later when we negotiate the agreement on a ceasefire. Also, though it is hard for us to accept their terms, the condition about war criminals is not so essential as to justify the continuation of the war. However, our position about the Imperial House is non-negotiable, because it will be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our n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our demands focus upon this issue.”

Navy Minister Yonai stated his opinion by request:

“I totally agree.”

Army Minister Anami stated his opinion by request:

“I totally disagree. The reason is that our country is going to lose its life as a moral nation if we accept the Cairo Declaration, which includes the annihilation of the Manchurian state. Even if we have to accept the Declaration, we need to have the four conditions accepted. I especially cannot agree with an idea that we will make a unilateral proposition to an immoral nation like the Soviet Union. We should live up to our cause even if our hundred million people have to die side by side in battle. We have no choice other than to continue the war by all means. I am confident that we are ready for the battles. I am sure we are well prepared for a decisive battle on our mainland even against the United States. Our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foreign countries might not

be willing to retreat unconditionally. There is also considerable sentiment among the people at home in fighting the war until the end, thus we may well face a civil war.”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Umezu:

“I absolutely 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Army Minister. We are prepared for a decisive battle on our mainland. Although the Soviet entry into the war is disadvantageous to us, we are still not in a situation where we should be forced to agree to an unconditional surrender. If we surrender unconditionally now, we have no excuse to make to those who have sacrificed their lives during the war. At the minimum, the four conditions proposed at the Supreme War Council this morning should be included before we make any concessions.”

President of the Privy Council Hiranuma spoke:

“I want to pose questions before expressing my own view. I have four questions altogether. To the Foreign Minister, I want to ask you about the development and the terms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On July 13 we conveyed the thoughts of His Majesty, requesting [the Soviets] to mediate an end to the war in order to terminate it as soon as possible. Also we proposed the dispatch of our special envoy. We later pressed them for a reply, but we didn’t receive one.

“On August 7 we received a telegram to the effect that Foreign Minister Molotov would meet us at 17:00 on August 8. Last night, on the 8th, Foreign Minister Molotov rejected our request for an agreement and [the Soviet Union] declared war.”

Privy Council Minister (President of the Privy Council Hiranuma is referred to hereafter as Privy Council Minister):

“Did you propose anything specific to the Soviet Union?”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We told them that we were going to propose specific conditions to them

through our special envoy but we didn't have a chance to do so."

Privy Council Minister:

"Then why did the Soviet Union declare war against Japan?"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I assume the Tass report indicates the true intention of the Soviet Union."

Privy Council Minister:

"What about the allegation in the Soviet state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formally rejected the tripartite declaration issued on July 26?"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We didn't take steps to reject it."

Privy Council Minister:

"Then on what ground does the Soviet government claim we rejected it?"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They must have imagined that we did."

Privy Council Minister:

"There is a clause in the tripartite joint declaration which says that we inflicted cruelties upon prisoners. And what about the handing over of war criminals? Can we assume that this matter should be handled domestically?"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There are quite a few precedents in which war criminals were handed over."

Privy Council Minister:

"Foreign Minister, do you think that we can agree to hand them over?"

Foreign Minister Togo replied:

"In my opinion, we will have no alternative but to hand them ov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Our enemies consider that the disarmament of the military should be forcibly executed."

Privy Council Minister:

“I also have questions for the Army Minister and the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You claim that we can still pursue the war but I have doubts because air raids will go on every day and every night. And are you confident in our defense against atomic bombs? Also, please explain to us how to deal with the paralysis of public transportation caused by air attacks on the mainland.”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Umezu replied:

“Though we haven’t made sufficient progress so far in dealing with air raids, we should expect better results soon since we have revised our tactics. But there is no reason we should surrender to our enemies as a result of air raids.”

Privy Council Minister:

“I want to ask the Navy Minister what measures you have taken against bombardment from offshore battleships (against enemy task forces).”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Toyoda:

“We had plans to attack enemy task forces solely by planes but we couldn’t mobilize enough forces for it because we had to prepare for battles on the mainland. From now on, we will revise our plan of operations so that we will be able to defeat them with additional forces as necessary.”

Privy Council Minister:

“I want to ask the Prime Minister. It is essential to maintain domestic order, so what measures do you plan to take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What is your plan regarding the food situation? It is getting really bad. The [domestic] situation these days is gradually getting closer to the point where we have to be seriously concerned. We should als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domestic disturbances, not by ending the war, but by continuing the war.”

Prime Minister Suzuki replied:

“I absolutely agree and I am also worried.”

Privy Council Minister:

“There is no room for further consideration but, since we are at a critical moment, I would like to express my own opinion. I agree with the Foreign Minister’s proposal in essence. I have the same opinion that what matters most is the preservation of the *kokutai* [= literally “body of the nation”]. But there is one part in this draft text where the terminology is very wrong. It is not legitimate to imply that the prerogatives of His Majesty as a sovereign ruler are derived from national laws. The essence of the Imperial rule was not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merely describes it. In terms of wording, I propose the text be changed to read: ‘[the declaration] does not comprise any demand which prejudices the prerogatives of His Majesty as a sovereign ruler.’

“Next, regarding the four conditions, while the Foreign Minister says that the enemy will not allow any negotiation about these conditions, what the Army Minister and the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have argued sounds reasonable to me. If there is no hope for negotiations or if we are confident in our plan of operations, we must continue the war.

“[At the same time,] His Majesty has a responsibility to the Imperial ancestors. If this [foundation of our nation] should be shaken, His Majesty’s responsibility would be grave. Those of us in the position of giving advice to him would also deserve a thousand deaths.

“Therefore, I suggest that we decid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for the future. We should take into full account whether the situation today is acceptable. We won’t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simply by force of arms. We also won’t be able to pursue the war if we ignore the people.

“In summary, I argue that we must push forward if we are confident; if not, we will not be able to continue the war however strong our Army and Navy are. And we have to preserve the *kokutai* and maintain the Imperial House at any rate, even if the whole nation must die in the war.”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Toyoda:

“The Navy General Staff mostly 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Army Minister and the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Though I can’t say that we will succeed without doubt, I am confident that we will be able to inflict major

damage on the enemy. There are some people at home who still have a burning passion for war while morale among many others is low.”

Prime Minister Suzuki:

“I deeply regret that we could not reach a consensus despite the deliberations for many hours. This matter is extremely important and it is indeed a critical question as the President of the Privy Council described. Since opinions are still divided, we have no choice but to ask for the *seidan* [= sacred decision].”

The Prime Minister stood up and walked in front of His Majesty, then declared that “we would ask for *go-seidan* and accept His Majesty’s opinion as the final decision of the council”.

Here is what His Majesty said in his *go-seidan* (according to the Hoshina memorandum):

“Regarding our response to the Allied Powers, I have the same opinion as the Foreign Minister has. In my view, foundation for the nation’s survival will remain as long as the Imperial House, the people and the national territory remain. We will risk losing everything if we continue a hopeless war. I have no expectation for victory after considering our material power compared to [the enemy’s] and various situations in and out of the country.

“I have been told that we have confidence in our victory but the reality doesn’t match our projections. For example, the Army Minister told me that the defense positions along the coast of Kujukuri Hama would be ready by mid August but it is not yet ready. Also I have heard that we have no more weapons left for a new division. In this situation, there is no prospect of victory over the American and British forces with such technological power. It is very unbearable for me to take away arms from my loyal military men and to hand them over to the Allied Forces as war criminals. But I should bear the unbearable from a broader perspective,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Emperor Meiji’s decision on the occasion of the Tripartite Intervention, so I decide this way in order to save the people from disaster and to bring about happiness to mankind around the world.”

After these words, I humbly observed His Majesty wipe his tears away

with his hand in a white glove. It was exactly at 2:30 A.M. on August 10.

Deeply moved by these words of His Majesty, those present at the council burst into wails. I was also present on the occasion, so I wailed together with the other participants and tears kept streaming down both of my cheeks. I am assured that this gush of an emotional cry came from our sincere intention to devote ourselves to the rebuilding of a new Japan with His Majesty's will in mind.

It is an ordinary reading of the Constitution that His Majesty will follow the advice of the cabinet. I presume that His Majesty overruled the Constitution in making *go-seidan* because he was determined to terminate the war by his own decision in this exceptional case.

Just after the Imperial council, His Majesty sent the following message to Chief of Army Military Affairs Bureau Yoshizumi through Chief Aide-de-Camp to the Emperor Hasunuma: "I am ready to go to the Imperial Headquarters or anywhere else to announce that it is my will to end the war if either the Army Minister or the Navy Minister has difficulty in persuading his subordinates. So tell the Army and the Navy [if it is necessary]."

I received the message from Chief of Army Military Affairs Bureau Yoshizumi, so I said, "I think the Navy should be alright, but how about the Army?," to which he replied that Army Minister Anami intended to ask His Majesty to come over. Then Navy Minister Yonai clearly stated as follows when I went to ask for his decision: "Both the Navy Minister and the Army Minister have responsibility to give advice to His Majesty. If a minister cannot handle the matter with his own capacity, he should tell His Majesty that he cannot carry out his responsibility to advise His Majesty and resign. I will have to resign as the Navy Minister if I need to ask for His Majesty's visit." I was impressed anew that the minister was a great person. After I conveyed this message to Chief of Army Military Affairs Bureau Yoshizumi, Army Minister Anami also agreed with the Navy Minister's opinion, so he replied to His Majesty that His Majesty's visit to the Imperial Headquarters would not be necessary. Then a Cabinet Meeting decided to agree with the Imperial decision following His Majesty's will and a telegram to the effect that we accept the Potsdam Declaration was sent at 7 A.M. on August 10 via Switzerland and

Sweden. In this telegram, we conditioned our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upon “the understanding that it does not comprise any demand which prejudices the prerogatives of His Majesty as a sovereign ruler”.

[3] Document 86 (1945. 8. 13.)

일본 외무성 편 <종전사록> 중, 항복에 관해 일본 내각과 군부 내의 계속되는 논쟁

The Cabinet Meeting over the Reply to the Four Powers (August 13)

Source: Gaimush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 Shusen Shiroku [Historical Record of the End of the War] (Tokyo: Hokuyosha, 1977-1978), vol. 5, 27-35

Next day, on August 13, the official reply from the Four Powers was also handed [to the Japanese] Near 9:00, at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a meeting was convened only with the Prime Minister, the Foreign Minister, the Army Minister, the Navy Minister, and both of the Chiefs to exchange opinions [Prime Minister Kantaro Suzuki, Foreign Minister Shigenori Togo, Army Minister Korechika Anami,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Yoshijiro Umezu, Navy Minister Mitsumasa Yonai, and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Soemu Toyoda]. The meeting, once interrupted from 9:00 to 10:30 when the Chiefs left and paid a visit to the Court, eventually lasted for about five hours in total until 15:00, with the arguments repeated and the debate stirred. The opening of the cabinet meeting was accordingly much delayed until 16:00. Concerning the reply from the Four Powers, the Prime Minister asked each of the members clockwise at the table to express his candid opinion.

Justice Minister [Hiromasa] Matsuzaka: I would like to clear some unsettled problems about the wording of the Third Point concerning the national polity [kokutai]. But if there is no room for further negotiation, I cannot accept it since our feeling as a faithful subject to the Emperor cannot

stand with the provision that the future of the Imperial House should be decided by the people. I think there is no choice for us but to redouble our resolution to fight to the end. Foreign Minister Togo: I think it is in fact impossible for us to ask for any more, as is the case with the non-aggression pact [the Paris Treaty]. I reach this conclusion only after taking in full accounts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Japan.

Matsuzaka: The idea that people as a sovereign will decide [the national polity]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concept [from the existing system]

Togo: At the time of His Majesty's Sacred Judgment at the Supreme War Council on August 9, "There is no hope to continue to wage the war. I will accept the [Potsdam] Declaration, in a spirit of enduring the unendurable," said His Majesty. It is contrary to our desire, but, following His Majesty's words, I feel that we need but to retreat.

Matsuzaka: If that is His Majesty's intention,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I would not dare to be against his sacred judgment.

Supply Minister [Teijuro] Toyoda: On the Third Point, I am in total agreement with Minister Matsuzaka's observ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accept its wording, but with the sacred judgment as mentioned by the Foreign Minister and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is problem might have been settled by the decision, too. No word is enough to depict His Majesty's feeling when he made the decision ... (and, he was ready to wait for His Majesty's Sacred Judgment).

Interrupted by Interior Minister [Genki] Abe: You have frequently referred to the Supreme War Council but it is not part of the institutions that the Constitution defines. In short, the whole matter is i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it is quite troublesome if the Government fails to fulfill its role as an adviser to His Majesty.

Togo: I just mentioned the fact of the Sacred Judgment. Of course, we, as the members of the Cabinet in charge of advising His Majesty, should express opinions freely based on each one's belief. Exactly for this purpose we have this Cabinet meeting.

Abe: If I remember correctly, our Cabinet decision was to continue the war unless we can preserve our national polity...

Then Cabinet Secretary [Hisatsune] Sakomizu challenged him over the phrase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polity and the Emperor's prerogatives as a sovereign ruler. The Prime Minister steered the debate away by asking Minister [Hyogoro] Sakurai for his opinion...

Minister Sakurai : It is beyond our reasoning. I will leave the whole matter to the Prime Minister. I believe that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should be in harmony. There is no hope left to u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war, now with the atomic bombs dropped and the Soviet Union joining in the war. The current reality in Germany indicates our ever difficulty as a different nation. Having said that, the lack of harmony between national politics and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could also lead our nation to collapse. The same can be said also in case of continuing the war. To die is easy, but to live is difficult. Today, it is totally impossible for us to see any sort of harmony between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It is this very point which demands our redoubled efforts. I would like to trust the whole matter to the Prime Minister, in fear that we might be following the same destiny as the Heike clan. Prime Minister Suzuki: I will present my opinion last. First, please give your opinions ... Minister Hirose?

Treasury Minister [Housaku] Hirose: There is no other way but to accept it as the Foreign Minister said, insofar as the national polity will be mostly preserved. Thinking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war, our productivity in major items after April and May is estimated to decline to the level of Showa First [1926] as early as at the end of this year. Moreover, entire small- and middle-size cities will be destroyed, and in addition, we now have the Soviet Union's entry into the war. =How much worse the situation could get, I don't know. At this moment, we should preserve our nation with the losses at the current level, in hope of a future restoration.

Agriculture Minister [Tadaatsu] Ishiguro: According to the judgment about our national capacity, there is no choice but accept. Having heard about His Majesty's deliberate Sacred Judgment at the Privy Council, I am but deeply impressed by his care about his subjects as the Emperor of Japan.

I would like to hear from the Prime Minister more about the Sacred Judgment. I regret I missed an occasion to hear about this before.

Suzuki: It is as the Foreign Minister said, I am afraid...

Minister [Touji] Yasui: I already said on a previous occasion that I cannot help but be against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But our nation might be in danger of collapse anyway without harmony between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between the civilians and the military. On this point, the Prime Minister and both the Ministers of the Army and of the Navy should act with a broader vision, and I hope even more efforts by the Prime Minister [toward the harmony] according to His Majesty's will. On the national polity I understand the point made by the Justice Minister. However, [the Four Powers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e polity]. I believe that to be in harmony with His Majesty's will is our nation's will. The conclusion is far from satisfying, but it is inevitable to achieve the harmony of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Suzuki: You have mentioned harmony, but I don't know what kind of harmony. In this time of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we had first the session of the Supreme War Council at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and then the Cabinet meeting, only to reach no consensus. Because of this, at the Privy Council I let each of you speak from your own opinion, asked the attendance by the Chairman of the Privy Council [Kiichiro] Hiranuma and asked His Majesty for the Sacred Judgment after the two-hour discussion. Even with these exhausting deliberations on both war and peace, we are still far away from any sort of consensus.

Yasui: When I mentioned harmony, I meant by it our attitude. As the problem is very grave, it is inevitable to see the confrontation of opinions. If a consensus is reached, however, we should be in harmony.

Suzuki: We have been already in harmony due to the Sacred Judgment.

Transportation Minister [Naoto] Kohiyama: Simply follow His Majesty's will. Very unsatisfying, but, consider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our national power, it is no choice but to accept.

Abe: It seems to me that the word "subject to" in the First Item suggests strict obeisance rather than mere restriction. The phrases about the national

polity, I think, are also against our current national polity. On top of that, if accompanied by the military occupation, we cannot but have much doubt in whether we can preserve our national polity. In Yanan [in China] there is a movement led by communists to liberate Japan. I cannot but shed tears when I hear about His Majesty's will, but we should firmly proceed to preserve the national polity. If there is no victory, we all should die. We should do it anyway. I would like to leave to the Prime Minister a choice between negotiations and war.

Education Minister [Kozo] Ohta: I talked with the Foreign Minister about a plan of inquiring again about the possibility of seeking changes [in the surrender terms], but it did not work out. This time, we have no choice. By His Majesty's will, I cannot but be impressed thoroughly. The arguments go like before...

Minister [Hiroshi (Kainan)] Shimomura [Director-General of Information Bureau]: I have already proposed that we should convey our will of acceptance with some words about our hope for information [about the Four Powers intentions]. I understand some disagreement over the Point Three, but what if our nation of Japan would be destroyed for good? Now is the time to follow only His Majesty's will.

[Minister of State Masazo] Sakonji: I understand that the Army Minister feels that [the situation] is more difficult than cutting himself⁵ but at this moment we should consider our endurance for the next hundred years. We should launch negotiations without delay to terminate the war.

Welfare and Health Minister [Tadahiko] Okada: We should accept in a spirit of a worm that bends itself.

Army Minister Anami: As I said before, I am thoroughly worried. Here everybody concerned has some doubts. Some argue that any condition proposed by us would break off negotiations, but we should put forward a proposal at least like this. Where we negotiate with a firm determination against any retreat, there is a hope. I believe that our demands will be incorporated to some degree without continuing the war. We should do what we should do.

(In a reply to Foreign Minister Togo's argument)

Anami: You argue there is no room for any further negotiation concerning disarmament and military occupation, but I believe there is some leeway. We should resolutely make our demands. Disarmamen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peace. Putting forward condition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continuation of the war. We are still left with some power to fight. Here over this point we differ in judgment. No need to listen to counterarguments any more. Now it is time for us to completely determine ourselves to be decisive.

Navy Minister Yonai: To much regret, it seems that there is no option left to us but to accept.

Prime Minister Suzuki: As we have listened to each of your opinions, I would like to present my own opinion. Up to this day, I had determined myself to carry out the war thoroughly, but a big shift in the circumstances forced my idea to change.

Having found some unacceptable items in the reply from the other side, I made my mind not to retreat from the war even a bit. However, putting it candidly, after I was advised by Chairman of the Privy Council Hiranuma yesterday and repeatedly read the reply, I came to realize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not written it with malicious intent. Both countries differ in the state of affairs and in the way of thinking. I concluded that they would change little in substance concerning the Emperor and therefore we should not complain over the wording. After all, they will not understand our complaints about the wording. Having said that, we should be careful about military occupation and disarmament. I do not believe that they would resume the war after filling in our moats like the battle of Osaka, but nevertheless we cannot be too careful about this point in time of accepting. If there is no malice about this point, there will be no problem. But if the way of occupation is ill-intentioned, it might be possible to find the war resumed again. This is the very situation both of the sides should prevent to happen. Finally, we feel some danger to the preservation of our national polity, but in asking to ourselves if we would continue the war thoroughly, we should remind ourselves that His Majesty desires peace. Even if we fight with our back to the wall, it is too late in the age of atomic bombs. Uwe

do, we will be never able to preserve our national polity. Perhaps, there might be a dim hope in the dark. There might be a way out of a fatal situation. It is not hopeless yet. But I should say this is a gamble too dangerous to make in preserving our national polity. We should remember His Majesty's desire to care for all of his people. For us as loyal subjects, it may be possible to fight to the end. In this way we may be able to satisfy ourselves, but if we contemplate on how Japan would be as its result, we will find it too dangerous. As His Majesty has already took into accounts such a danger in time of making his Sacred Judgment, I believe there is no other way for us but to follow it and serve him. Therefore, in this sense, I will report today's discussion to him as it is and ask for his Sacred Judgment.

Anami: In fact, allowing us to disarm ourselves voluntarily is the way to expedite peace. If military occupation ever comes, we will be totally naked while the other side has warships and airplanes. Should we ever violate our promise, they would be able to do whatever they want. They can do the task of occupation with only a few supervisors. This way will help both sides. At this time with some power left to us, we should grab a diplomatic=opportunity.

Togo: Without a firm resolution to fight more, we will present our opinions at every appropriate opportunity.

Anami: Please add this to our reply. Yasui: I agree.

Yonai: For the two proposals we have discussed, this opinion is about the one on which His Majesty has already made his Sacred Judgment. I think it inappropriate to discuss a thing we have already rejected before.

Suzuki: I think so too.

Yasui: But simply communicating our desire will be a good way to take initiative. We should not say this is a condition...

Anami: The current situ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time of the Sacred Judgment. [At the last Privy Council on August 9] we had the only one proposal from the Foreign Minister. I would like to ask the Navy Minister [whether it is true], but I don't think it is wrong.

Togo: It seems impossible for us to insist on our voluntary disarmament with small arms left to us, but I will make a representation when the time comes.

Some proposals are made by Shimomura, Ishiguro, and Kohiyama.

Togo: There is an opposition [to peace with Japan] on the other side. I would like to handle a problem of condition as a separate matter.

Toyoda: How about touching it in a nonchalant manner?

This all happening, the Canibet meeting dissolved without conclusion. [...]

[4] Document 89 (1945. 8. 14.)

정보국 총재 시모무라 히로시의 <종전기> 중, 천황의 두번째 ‘성스러운 결단’에 관하여

The Second Sacred Judgment

Source: Hiroshi [Kaian] Shimomura, Shusenki [Account of the End of the War] (Tokyo, Kamakura Bunko, [1948], 148-152

The night of the 13rd passed by without the dream [of peace] coming true. On August 14, Tuesday, in the anteroom in Prime Minister's Residence were the Cabinet members in anticipation of a regular Cabinet meeting at 10:00 a.m., exchanging the whisper in anxiety. Now against the peace talk sprouted all sorts of argument, throwing all the corners of the nation into chaos. Some hardliners, in collaboration with right-wingers, ultra-nationalists and middle-ranking military officers, were beginning to stir about restlessly.

It was near 10:00. We received an order to call on the Court at 10:30 by His Majesty's request. It was shortly after the Prime Minister had reported the latest development and returned from the Court. Without a doubt, the order was a result of his visit. At any rate, we were told that there was no need to change the clothes because of the urgent order. In fear that it would be too much discourtesy to proceed in front of His Majesty [in that way], however,

some borrowed neckties from their secretaries and others attempted to make an open collar shirt look like a closed one. Some even exchanged clothes with their secretaries. I was lucky to be wearing the national uniform. Keeping a medal hanging on it, I joined all and headed to the Court.

The Inner Palace of the Fukiage Imperial Gardens, a place I still freshly remembered when I had paid my sole visit to His Majesty for two hours before August 6, is a very simple house, with the entrance of the air raid shelter in front of its main entrance. The tunnel after descending to it is quite long, running straight for a while, and then turning to right to the conference room. Facing the imperial chair are two rows of chairs. From right to left are Prime Minister Suzuki, Chairman of the Privy Council Hiranuma, and then five to six cabinet members including Army Minister Anami, with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Umezu and Chief of the Navy General Staff Toyoda at its end. Behind them are the rest of the cabinet members and myself, and behind us are Chief of the Comprehensive Planning Bureau [Masasumi] Ikeda, Cabinet Secretary Sakomizu, Chief of the Army Military Bureau [Masao] Yoshizumi and his naval counterpart [Zenshiro] Hoshina, all sitting down and anticipating His Majesty's arrival. The sheer silence just before his arrival prevailed in the room, interrupted only by whispers. Soon, His Majesty arrived with the lead by Chief aide-de-camp [Shin] Hasunuma. After all paid to him their best respects by bowing deeply, Prime Minister Suzuki reported all the latest developments in a summary. The Cabinet meeting, he said, found about four-fifth of the members in favor of the original plan, but failed to reach a unanimous consensus. He deeply apologized of bothering His Majesty again and asked him to listen to some opinions against the plan and make another Sacred Judgment.

Following the Prime Minister's explanation, both of the Chiefs and the Army Minister, standing up one by one, made an impassioned plea in tears, insisting that we should qualify our acceptance out of fear that the plan as it is now might endanger our goal of preserving our national polity. Here I do not bother to detail it. Hearing this sort of opinion, I remembered the words "Koudou" (The Emperor's Way) and "Shindou" (The Loyalists' Way) which Prime Minister Suzuki always mentioned. "The loyalists deserve death should their Highness be disgraced," according to an ancient saying. No other words can express more correctly the feeling of the generals today than this word.

Surely they deserve death. They have already dedicated themselves to His Majesty. But as the situation goes, His Majesty will be disgraced. Our national polity might be put in danger. Although I sympathized with their willingness out of their pride as military officers to search for a faint hope in another battle, I cannot but wonder if there would be any way out of the situation even without atomic bombs or the Soviet entry. Nowadays our problem gets much worse than simply seeing our Emperor disgraced. It is much and much worse than that. We are leading our homeland, our people, and even Japan itself to total destruction. In this time of losing everything, we should weigh the Emperor's Way caring for Japan and its 80 million people more than the Loyalists' Way.

I kept my eyes on Prime Minister Suzuki nearby me. I also looked toward Navy Minister Yonai. Admiral Yonai, now the Navy Minister; had long told us that few chances to win were left to the military, even less if another day passed by. Even at this point, the situation was many times as against us as against the other side, and he had called for a preservation [of Japan's power] as early as possible. Even from a point of view of pride, he refrained from any bravado and bravely — I dare to call it bravely — demanded that the sword we blandished be laid down. I felt that it was the very example which demonstrated true bravery. One day he said to me, "Toward the ruler the military insisted that we should single-mindedly redouble our efforts to carry the war to the victory. When asked if they had any estimate for a victory, they could not answer." True, man is a creature which cannot live without food. Nowadays the shortage of food is clear to all. The enemy's weapons have upgraded from air-fortress B-17s to super air-fortress B-29, even to atomic bombs. Our weapons have downgraded from cannons to grenades, even to bamboo spears. Which is the winning side? Now our national power is nose-diving.

I expected some argument in favor of acceptance after the opposition by Anami, Umezu and Toyoda, but, given the previous Sacred Judgment, it seem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it. Soon, the time came for His Majesty's words. It was around 11 a.m. on August 14.

In our deep emotional state, none of us prepared a draft or transcript of His Majesty's words. I took a memorandum by recalling them from my fresh memory before my emotion cooled off. As they lie at the core of the drama leading to the end of the war, His Majesty's words I am here describing are a

product after referring to two hand-written memos by Minister Sakonji, and Education Minister Ohta, besides mine, and also being reviewed by Prime Minister Suzuki.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ollowing text is the transcript closest to His Majesty's words:

His Majesty's Words

"If there is any other opinion to be presented, I would like to make my own comment.

I have carefully listened to the opposition, but my idea has little changed from what I told before. As a result of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circumstances in the world and at home, I conclude that it is impossible for us to continue the war any more.

There seemingly remain some doubts about the issue of the national polity, but I would interpret from the implication of the reply that the other side is considerably well-intentioned. I understand the opinions pointing out a touch of uncertainty in the attitudes on the other side, but I would not like to suspect so. In short, as the whole matter can be reduced to the faith and determination of our whole nation, I think it appropriate to accept the offer. Please think so, too.

Furthermore, it is fairly understandable to me that something like disarmament and military occupation is truly unbearable to the soldiers. But I would like to save my people's lives even at my expense. If we continue the war, the result will be that our homeland will be reduced to ashes. It is really intolerable for me to see my people suffering any more. I cannot be accountable to the spirit of our ancestors. If we choose peace, of course we cannot put our unconditional trust on the other side. But compared to the result of losing Japan itself we can at least hope for reconstruction as long as some seeds remain.

Remembering the bitterness and grief Emperor Meiji went through in time of accepting the Tripartite Intervention! We, with the nation firmly united, should set out for a future restoration by tolerating the intolerable and bear the unbearable. I cannot be sadder when I think about soldiers dead at battlefields, those dead on their duty, and their beleaguered families. I am also deeply worried about the lives of those who suffer in war and lose their way of making

their living. At this time, if there is anything I should do, I will do it. If it is to make an announcement to the nation, I will stand in front of the microphone at any time. As we have not informed people of anything so far, our sudden decision will be very disturbing to them. It is all the more so to the soldiers.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ooth this disturbance, but, both the Ministers of the Army and of the Navy, please understand my feeling and make your best efforts to put the situation under firm control. If necessary, I will go to public and explain. I think we need to issue an imperial edict, so I would like the government to draft it without delay.

The above is my idea."

It should be my duty, as one of those who attended the Privy Council at the crossroads of the Greater Japanese Empire, an unprecedented Privy Council in history and perhaps also in the future, to record all the details. But that is beyond my power.

While listening to his holy words, from every corner of the room the sound of sobs prevailed. Every single word he uttered was impressive. As he pronounced his determination to save the nation even at the expense of his own life and loudly wondered how we can honor the spirits of our ancestors if our homeland is burned to ashes and our people are lost in the blazing fire of war, the sound of our sobs became louder. Furthermore, when he said he would do anything and stand in front of the microphone if necessary, I could not suppress my sobs and tears, loudly crying despite being in a public place. The members could barely get up from their chairs. Through the long tunnel back to the surface, in the car, back to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in our dens and in attendance at the Cabinet meeting, we could not suppress our tears every time we remembered the scene. Even in front of the press I could not stop shedding tears. Both the interviewers and the interviewee uttered few words, just shedding tears together. That night, next day and the day after another, I remembered and cried, and remembered and sobbed. Now one and half a month later, in writing this manuscript, I cannot help but remember the day and find myself overwhelmed by a flood of emotions with my pen hardly moving forward. I stop writing here tonight (September 26, 1945, 9:30 p.m.).



사진 5. 평화공원 평화의 신 동상 앞에서 사랑방 9기

참고문헌

Burr, William, ed. 2017. “The Atomic Bomb and the End of World War II: A Collection of Primary Sources.” National Security Archive. <https://nsarchive2.gwu.edu/nukevault/ebb525-The-Atomic-Bomb-and-the-End-of-World-War-II/> (accessed on January 18, 2018)